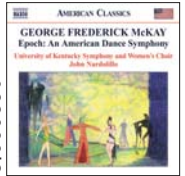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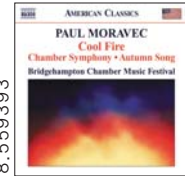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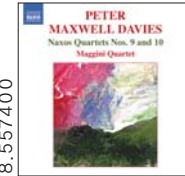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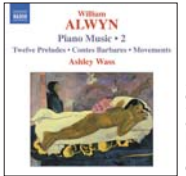


Naxos new release

8.570321  BRAHMS SCHUMANN Violin Concertos Ilya Kaler, Violin Bournemouth Symphony Orchestra • Pietari Iskinen 브람스 & 슈만: 바이올린협주곡 일라 칼러(vn) 피에타리 인키넨 본머스 심포니	8.570360  Charles-Auguste de BERIOT Violin Concertos Nos. 2, 3 and 5 Philippe Quint, Violin Slovak Radio Symphony Orchestra Kirk Trevor 베리오: 바이올린협주곡 2,3,5번 필립 쿼트(vn) 커크 트레버 슬로박 방송교향악단	8.570581  BUXTEHUDE Suites in A major and F major La Capricciosa Lars Ulrik Mortensen, Harpsichord 복스테후데: 하프시코드 모음곡 A장조, F장조, 칸초네타, 전주곡 라스 울릭 모르텐센(cemb)	8.570716  MUSSORGSKY Pictures at an Exhibition (Orchestrations compiled by Leonard Slatkin) LISZT Piano Concerto No.1 Peng Peng, Piano Nashville Symphony Orchestra and Chorus Leonard Slatkin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여러 편곡 모음) 리스트: 피아노협주곡 1번 펑펑(pf) 레너드 슬라트킨 내시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8.570800  ANTONIO BAZZINI VIRTUOSO WORKS FOR VIOLIN AND PIANO Chloë Hanslip, Violin Caspar Prastitz, Piano 바치니: 바이올린을 위한 초절기고 소품들 (요괴들의 춤 외) 클로에 한슬립(vn) 카스파르 프란츠(pf)	8.570445  VIVALDI SACRED MUSIC Magnificat • Nisi Dominus • Kyrie In ferre instrumentum tria • Suble Regna Cello Ensemble • Lynn McHenry The Royal Hall Choir • Jennifer Lane Wilson Andrea Frazzetta • Kevin Walker 비발디: 마니피카트, 살베레지나, 니시 도미누스 외 여러 가수들 케빈 말론 아라디아 앙상블	8.570773  MARK EVITCH Complete Orchestral Works • 1 Partita • Le Paradis Perdu (Oratorio) Sinfonia • Netherlands Concert Chorus Arnhem Philharmonic Orchestra • Leonard Goe 마르케비치: 파티타, 실락원 마르틴 판 덴 호크(pf) 여러 가수들 크리스토프 린트-기 아른헴 필하모닉	8.559381  LEWY ANDERSON Orchestral Music • 4 Irish Suite Scottish Suite Alma Mater Alan Crivello, Soprano William Dunlop, Baritone BBC Concert Orchestra Leonard Slatkin 앤더슨: 아일랜드 모음곡, 스코틀랜드 모음곡, 여름 하늘 외 레너드 슬라트킨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8.559331  JOHN CORIGLIANO MR. TAMBOURINE MAN SOUNDTRACK BOB DYLAN The John Corigliano Project John Corigliano, Composer John Corigliano, Conductor John Corigliano, Arranger 코릴리아노: 미스터 탬버린 맨 (밥 딜런의 7개의 시) 외 힐리 플리트만(sop)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	8.559330  GEORGE FREDERICK MCKAY Epoch: An American Dance McKay University of Kentucky Symphony and Women's Choir Julia Savatkin 맥케이: 신기원 (아메리칸 댄스 심포니) 존 나르돌로 켄터키 대학 심포니 오케 스트라와 합창단
8.559383  DAVID WINKLER Piano Concertos • Elements Concerti Alexander Piatra, Piano • Anna Robinson, Viola Orchestra Sinfonica de la Universidad de Cape Orchestra de Chantier François David Winkler • Franck Michon 윙클러: 피아노협주곡, 엘리먼트 콘서트 알렉산더 파니차(pf) 안나 라비노비치(vn) 데이비드 헨델 외 UNCuyo 심포니 외	8.559393  PAUL MORAVEC Cool Fire Chamber Symphony • Autumn Song Bridgton Chamber Music Festival 모라베크: 체임버 심포니, 가을 노 래, 차가운 불 브리지햄튼 체임버 뮤직 페스티벌	8.557400  PETER MAXWELL DAVIES Nexus Quartets Nos. 9 and 10 Maggini Quartet 맥스웰 데이비스: 낙소스 사중주 9, 10번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8.572033  Petrit Ceku Guitar Recital Winner 2007 Michele Piniello Guitar Competition City of Alexandria Award GUITAR RECITAL BACH BEZONNE ASENCIO RODRIGO 페트리트 체쿠 기타 리사이틀 JS 바흐, 레콘디, 아센시 오, 로드리고의 기타 작 품들	8.570464  WILLIAM ALWYN Piano Music • 2 Twelve Preludes • Canticum Barabara • Movements Ashley Wann 얼윈: 12개의 전주곡, 폴 고갱 오마주, 수선화, 무브먼 츠 외 애슐리 워스 (pf)	8.570461  IRELAND Piano Works • 3 Sonata • Preludes • Green Wagon Anthony Wild Brooks • Ballade of London Nights John Lushington, Piano 아일랜드: 피아노소나타, 전주곡 외 2개의 소품, 녹색길 외 존 레네한 (pf)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33호 | August, September 2008

New Release

퓨전국악음반 에브리데이 국악 'Driving Music'

CD Hot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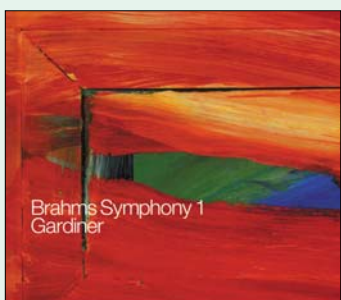
존 엘리엇 가디너 브람스 교향곡 시리즈 제 1탄

Cover Story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 발레 DVD



SDG를 통해 선보이는 [존 엘리엇 가디너의 브람스 교향곡 시리즈 제 1탄]



브람스: 교향곡 1번, 운명의 노래 Op.54, 장송곡 Op.13

멘델스존: Mitten wir im Leben sind Op.23-3

그라모폰 2008년 10월호 추천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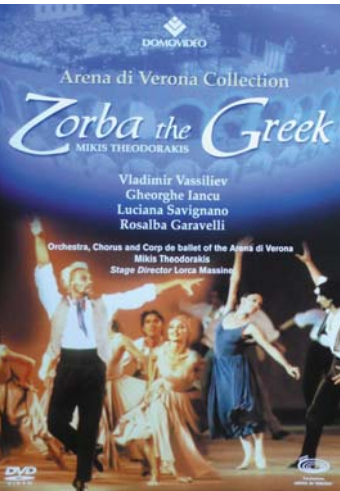
2007년 11월에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를 통해 강렬하게 각인되었던 '심포니스트'로서의 가디너를 다시금 접하게 된다.

"시리즈의 좋은 징조를 알리는 계시적인 연주. 엄청나게 극적인 이 연주는 힘이 넘치면서도 가식이 없다. 강력한 브람스 교향곡 1번으로, 함께 수록된 3편의 합창곡과 더불어 충분히 제대로 된 연주다."

[Richard Osborne 그라모폰 2008년 10월호]

“조르바의 댄스” 그 이름만으로도 흥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자유로운 영혼과 송고한 인간미의 극적 완성미를 갖춘 발레극 그리스인 조르바, 그대 영혼도 자유롭게 휘~휘 춤출 수 있기를...



Domovideo DMM-518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로르카 마신느

조르바의 댄스

그리스인 조르바

- 카잔차키스의 소설, 테오도라키스의 음악을 춤으로 만든 감동의 극치
- 1990년 베로나 페스티벌에서 리바이벌된 실황을 수록
- 불소이 발레의 전설, 블라디미르 바실리에프가 조르바의 화신같은 명연
-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직접 지휘와 감독을 맡아 소중하고도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
- <여행자의 노래> 선곡자인 임의진 시인이 춤꾼 조르바 이야기를 북클릿으로 덧붙였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이다. 작가와 직접 만났던 실존인물 조르바는 삶의 지혜를 본질적으로 깨달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서 전세계에 조르바 신드롬을 일으켰다. 안소니 퀸 주연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으며 해변에서 춤추는 피날레는 영화사상 불멸의 명장면이다. 그 영화음악은 그리스 음악계의 상징적 존재인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작곡한 것이었다. 테오도라키스는 이를 확대하여 발레음악으로 만들었고, 러시아의 위대한 무용가 레오니드 마신느의 아들인 로르카 마신느가 안무를 맡았으며 소설을 발레로 바꾸면서 극을 압축하였지만 조르바와 그의 친구 존의 춤에 크레타의 군중이 가세하는 피날레는 안소니 퀸이 추었던 영화 속의 명장면 이상으로 감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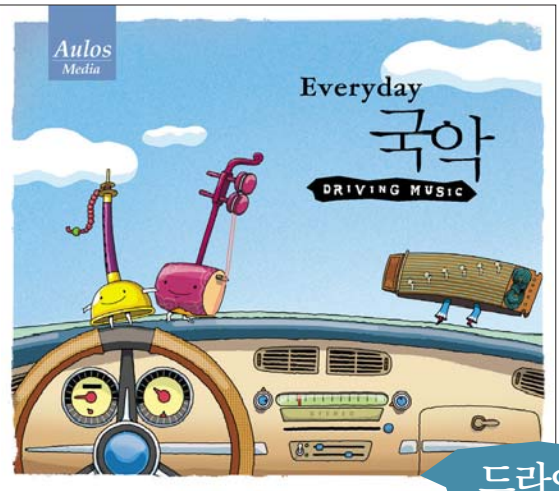
[줄거리]

존이라는 한 그리스계 외국인 여행자가 크레타 섬에 도착한다. 그는 크레타의 지역문화에 동화되기를 원하고 그곳 처녀 마리나와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요르고스라는 그리스 청년이 이미 마리나를 사랑하고 있어서 이곳 사람들은 타지 출신인 존을 경원하게 된다. 출신이 불분명하고 가난한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영혼만큼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자유인이자 현자(賢者)인 늙은 조르바가 이 섬에 도착하여 존에게 고용되는데, 두 사람은 수십 년의 연령 차이를 뛰어넘은 우정을 나누게 된다. 특히 조르바는 존에게 삶을 이완시키기도 하고 디오니소스적인 열락을 제공하기도 하는 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도 한다. 크레타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전직 사교계 여인 마담 코르탕스는 조르바를 통해 그녀가 과거에 사귀었던 여러 남자의 복합적인 전형을 본다. 조르바도 그녀의 관심에 응하여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결혼까지 응하게 되지만 자유인의 태도만큼은 잃지 않는다. 한편 마리나는 존에 대한 섬사람들의 집단적인 적대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의 곁에서 사라지고, 존은 절망감에 빠진다. 그를 구해내는 것은 역시 인생을 달관한 조르바다. 그러나 조르바 역시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특히 마담 오르탕스가 병에 들어 죽자 실의에 빠진다. 이번엔 존이 그로부터 배운 춤의 제전으로 조르바를 초대하여 그의 활력을 되찾아 준다. 그들의 춤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 그들은 춤을 통해서 과거의 비극을 지워내고 라틴적인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



존 역/ 게오르기 이안꾸

마리나 역/ 루치나 사비나노



AMC2-094

날마다 국악 만나기 ...

김은정 PD의 Everyday Kukak

드라이빙 뮤직 DRIVING MUSIC

[수록곡]

1. 아리랑
라틴재즈밴드 카리브 중 11번 4:24
2. What A Wonderful World
신날새 해금 인 멜로디 중 5번 2:25
3. 기분 좋은 하루
정길선 그녀의 사랑이야기 중 7번 3:58
4. Misty
한충은 모닝 중 9번 4:25
5. 여우 시집가던 날
김경아 연정 중 5:34
6. Fly Me to the Moon
여울 행복한 이야기 중 2번 3:47
7. 나의 첫 번째 자전거
그림 판 프로젝트 2 중 5번 3:01
8. 백 만 송이 장미
IS 아이에스 원스텝 중 4번 4:45
9. 엘 콘도르 파사
다스름 바람의 향기 중 13번 2:59
10. 도라지
노은아 사슴이 해금을 켜거늘 중 10번 3:53
11. 오봉산타령
플라잉코리언 중 9번 3:42
12. 올라 아리랑
인터 플레이 연주 11번 3:38

KBS 국악전문 프로듀서 김은정 PD가 추천하는
에브리데이 국악 <드라이빙 뮤직>

나만의 공간, 내가 아끼는 사람과의 시간에 포근함과 편안함을 함께 들여 놓을 수 있는 음악, 드라이빙 뮤직을 선정해 본다. 서양음악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퓨전국악으로 매일매일 당신의 귓가에 정겨운 우리악기 소리를 두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참으로 볼 것, 들을 것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빠르고 편리함을 추구하다보니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공간의 어지러움 속에 놓여있게 되었다. 짧은 시간, 좁은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도 점차 호흡이 가파르고 복잡한 소리로 채워진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 또는 내가 아끼는 사람과의 시간에 포근함과 편안함을 들여 놓을 수 있는 음악들을 제안해 본다. 서양음악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퓨전국악들을 소재로 하였다.

매일매일 당신의 귓가에 정겨운 우리악기 소리를 두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2008년 9월 KBS 국악전문프로듀서 김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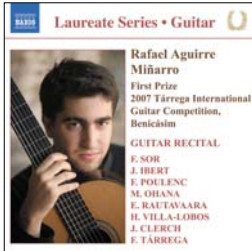


Nax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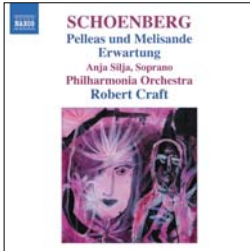
www.naxos.com



8.570398
보테시니: 더블베이스협주곡, 엘레지 1번, 〈알리바바〉서곡 외
토마스 마틴(db)/ 매튜 김슨/ 런던 심포니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로 불렸던 보테시니는 자신의 악기를 위한 작품
들 외에도 다수의 오페라를 완성하기도 했다. 본 음반에는 그의 오페라
들인 '에로와 레안드로', '밤의 악마', '알리 바바' 3작품의 서곡들과
더불어 더블베이스협주곡으로는 가장 유명한 작품인 협주곡 C단조, 벨
리니 '청교도' 선율을 의한 첼로와 더블베이스를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등이 수록되어있다. ASV음원의 재발매 음반.



8.572064
타레가: 베니스사육제 변주곡,
소르: 환상곡 5번,
라우타바라: 파르티타 외
라파엘 아귀레 미나로(guitar)
2007년 타레가 콩쿠르 우승자인
스페인 기타리스트 라파엘 아귀
레 미나로의 데뷔 음반. 소르의
환상곡 Op.16, 타레가의 '베니
스 사육제 변주곡'과 같은 기타
레퍼토리의 고전에서 이베르의
'아리에트'와 폴랑의 '사라방
드', 빌라로보스의 기교적인 작
품인 에튀드 7번과 12번, 핀란드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파르티타
와 쿠바 작곡가 호아킨 클레르크
의 소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성의 기타 소품들을 수록하였
다.



8.557527
 쇤베르크: 교향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노드라마 〈기대〉
안나 실라(sop)/ 로버트 크래프
트/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교향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는
동명의 드뷔시 오페라에 버금가
는 선세이셔널한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초연 이후 '작곡가를 정
신병원에 보내고 악보에 손을 못
대게 해야한다'는 혹평을 듣기도
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엄청
난 성공을 거두고 후기낭만시대
의 마지막 관현악 걸작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소프라노와 관
현악을 위한 〈기대〉는 텍스처와
와 템포가 끊임없이 변화해나가
는 독특한 스타일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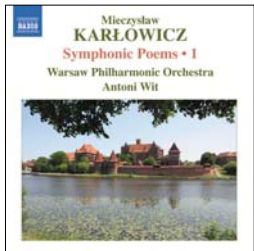
8.570796
리스: 피아노 소나타와 소나티나 Vol.1
수잔 케이건 (pf)
베토벤의 친구이자 애제자였던 페르디난트 리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
고 있다. 그는 다음세대의 멘델스존이나 쇼팽을 예견하는 듯한 뛰어난
선율미와 아름다운 서정을 담은 피아노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소나타 Op.11-1의 마지막 악장은 주제와 6개의 변주
로 이루어진 마지막 악장이 특징적이며, 소나티나들의 아기자기한 매력
도 빼어나다.



8.570785
레거: 현악 삼중주 Op.77b, 피
아노 사중주 Op.113
알페르토 피아노 콰텟
레거는 바흐 이후 가장 위대한
독일 오르간음악 작곡가였지만,
관현악과 실내악 분야에서도 뛰
어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현
악삼중주 Op.77b는 모차르트를
연상케하는 투명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며, 브람스의 걸작을 모델
로 삼은 피아노 사중주 Op.113
는 풍부한 표정을 담은 연주시간
50분 남짓한 대작으로 작곡가
스스로 '미친 스케르초'라고 불
렀던 2악장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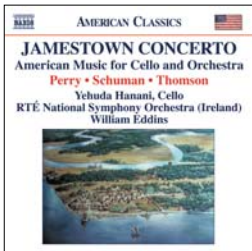
8.559355
월든: 마케트, 호른 트리오, 5개
의 직유법, 슈마
로버트 레빈, 야 페이 추양(pf)/
스펙트럼 콘서트 베를린
스탠리 월든은 작곡, 지휘, 음악
교육 등의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
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2대의 피
아노를 위한 마케트는 로버트 레
빈 부부를 위해 완성한 작품으
로, 쿠바 재즈 피아니스트 추초
발데스를 기리는 마지막 악장이
인상적이다. 유대 전통음악을 모
방한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슈마', 9.11 사태의 슬픔과 분노
를 표현한 호른 트리오, 표제적
인 성격의 피아노 소품 '5개의
직유법'이 수록되었다.



8.570452
카를로비치: 가면무도회의 에피
소드, 리투아니아 랩소디 외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카를로비치는 스키를 타다가 눈
사태로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
절한 비운의 폴란드 작곡가다.
그가 남긴 6번의 교향시는 세기
전환기 폴란드의 관현악을 대표
하는 걸작들로 평가받고 있다.
본 신보에는 그 중 3,4,6번에 해
당하는 세 작품이 수록되었다.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향수가 상
상력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신선하고도 개성적인 화성을 통
해 표현된 후기낭만주의 관현악
의 숨겨진 걸작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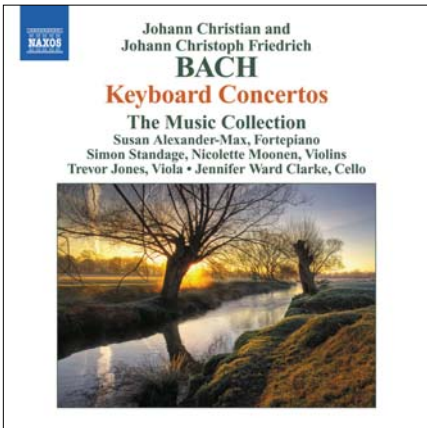
8.570873
필라티: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피아노와 현을 위한 모음곡 외
토마시 네메츠(pf)/ 아드리아노/
슬로박 라디오 심포니
나폴리 출신의 마리오 필라티는
달라피콜라, 로타 등과 함께 이
탈리아 음악의 새로운 기대주로
주목받았으나, 35의 나이로 요절
함으로써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
어졌던 작곡가다. 피아노와 현을
위한 모음곡은 신고전주의 경향
을 보여주며, 관현악을 위한 협
주곡에서는 민속음악적인 요소
와 함께 바로크 시대 합주협주곡
을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해내
었다. 서정적인 자장가인 〈요람
옆에서〉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
다.



8.559344
페리: 제임스타운협주곡, 톨슨:
첼로협주곡, W. 슈만: 오르페우
스의 노래
예후다 하나니(vc)/ 윌리엄 에딘
스/ 아일랜드 국립교향악단
윌리엄 페리의 제임스타운 협주
곡은 첫 정착지였던 제임스타운
의 역사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
으로, 영화음악으로 유명했던 작
곡가 특유의 친근한 음악서법으
로 미국의 향토적인 정취를 멋지
게 표현해내었다. 버질 톨슨의
첼로협주곡 역시 미국적인 색채
로 가득 채워진 보수적인 스타일
의 작품이며, 윌리엄 슈만의 '오
르페우스의 노래'는 셰익스피어
의 시 '오르페우스와 그의 류트'
를 음악으로 그린 작품이다.



8.570435
슈바르츠-실링: 교향곡 C장조,
온음계 신포니아 외
호세 세레브리에르/ 슈타츠카펠
레 바이마르
라인하르트 슈바르츠-실링은 윤
이상스 스승 중 한 사람으로 기
억된다. 독일 음악계가 12음기법
에 열중해 있을 동안에도 보수적
인 자신의 음악세계를 고집했던
이 작곡가의 대표적인 관현악곡
들이 본 음반에 수록되어있다.
최초로 녹음되는 온음계 신포니
아는 고전주의의 오마주와도 같
은 신선한 작품이며, 다편성 오
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C장조
는 강렬한 다이내믹의 대비와 풍
부한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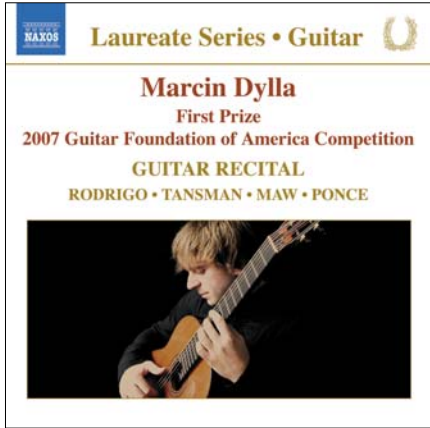
8.570474
J.C. 바흐 & J.C.F 바흐: 건반협주곡
수잔 알렉산더-맥스(fp)/ 더 뮤직 컬렉션
JS 바흐의 막내아들이자 '런던의 바흐'로 불렸던 요한 크리스티안은
18세기 후반 피아노음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의 건반협
주곡들은 당대의 우아한 갈랑스타일과 기교적인 패시지가 적절한 조화
를 이루고 있다. 한때 요한 크리스티안의 작품으로 알려졌던 협주곡 A
장조와 Eb장조는 '뮌헨부르크의 바흐'로 불렸던 바로 위의 형인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의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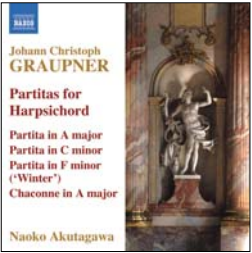
8.570713
브레톤: 피아노 트리오, 4개의
스페인 소품
LOM 피아노 트리오
스페인의 고도 살라만카 출신의
토마스 브레톤은 작곡가이자 지
휘자였으며, 마드리드 음악원의
수장으로서는 이 나라 음악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다. 4개
의 스페인 소품은 20세기 초반
큰 인기를 누렸던 작품으로, 작
곡가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스페
인의 향토적인 색채가 농후한 작
품이다. 반면 피아노트리오는 독
일 낭만주의 음악의 색채에 보다
가까운 작품이다.



8.570511
D. 스카를라티:
건반소나타 전집 Vol. 10
콜린 리 (pf)
나폴리악파의 대표인물인 알레
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아들인 도
메니코는 바흐, 헨델과 같은 해
인 1685년에 태어났다. 550편이
넘는 건반소나타가 그의 가장 큰
음악적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카를라티 소나타시리즈의 10
번째인 본 음반에는 작곡가의 소
나타들 중 가장 대작에 속하는
K90을 비롯한 14편의 소나타가
수록되었다. 2005년 쇼팽 콩쿠
르에서 유망한 여성 걸선 진출자
였던 콜린 리가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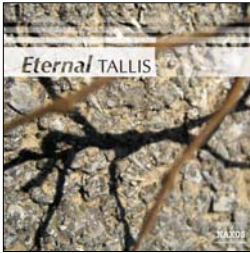
8.572060
폰세: 로멘틱 소나타 <슈베르트 오마주>, 탄스만: 스크라빈 변주곡 외 마르신 딜라 (guitar)
2007년 미국 기타재단 콩쿠르의 우승자인 폴란드의 기타리스트 마르신 딜라의 데뷔 음반. 스페인, 폴란드, 영국, 멕시코의 대표적인 기타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담았다. 폰세의 걸작 '슈베르트 오마주',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에서 소재를 취한 모의 '기억의 음악', 스크라빈의 전주곡 Op.16-4의 선율에 기초한 탄스만의 '스크라빈 주제의 변주곡', 로드리고의 '헤네랄리페 옆에서' 등을 수록.



8.570459
그라우프너: 파르티타 GWV 121, 133, 149, 샤콘느 A장조 나오키 아쿠타가와 (cemb)
그라우프너는 바흐, 텔레만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로 방대한 양의 종교합창곡과 관현악작품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비르투오조 하프시코드 연주자로 유명했다. 3조의 파르티타는 전형적인 바로크 춤곡 모음곡의 외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자유분방한 프렐류디움과 다양한 형식의 춤곡들로 구성되었다. 샤콘느 A장조는 건반을 위한 동일형식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8.570543
부조니: JS 바흐 환상곡, 엘레지엔, 바흐 전주곡과 푸가 BWV532의 편곡 외 볼프 하덴 (pf)
6개의 소품으로 구성된 '엘레지엔'은 초절기고 연주자로 한 시대대를 부조니가 진정한 작곡가로 거듭나게 만들어준 작품으로, 이탈리아 민요, 루터 코랄, 영국민요 '그린슬리브스' 등의 다양한 소재를 적절히 활용한 개성만점의 피아노 소품집이다. 바흐의 유명한 '전주곡과 푸가 BWV532'의 편곡과 바흐 판타지아는 바흐에 대한 부조니의 열렬한 존경심을 새삼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다.



8.572081
Eternal Tallis Various Artists
인기 미국 드라마 '튜더스'를 통해 새삼 친근한 이름이 되어버린 영국 종교합창곡의 대가 토마스 탈리스. 그가 영국 성공회를 위해 완성한 영어 텍스트의 성가와 자신의 가톨릭 신앙을 위해 완성한 라틴 텍스트 성가, 오르간 작품, 비올 콘소트 음악들 중 널리 알려진 명곡들을 모았다. 40성부를 위한 유례없는 대작 폴리포니 합창곡인 'Spem in alium', 4성부의 미사, 'in nomine', 'salvator mundi'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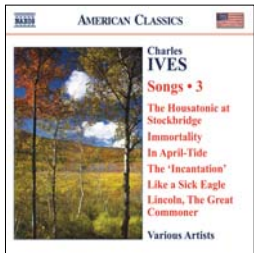
8.570800
바치니: 바이올린을 위한 초절기교 소품들 (요괴들의 춤 외) 클로에 한슬립(vn) 카스파르 프란츠(pf)
안토니오 바치니는 파가니니의 인정을 받았던 당대의 대표적인 비르투오조로, 자신의 뛰어난 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소품들을 다수 완성하였다. '요괴들의 춤'은 벵게로프의 연주를 통해 유명해진 작품으로, 한슬립 역시 벵게로프에 뒤지지 않는 완성도 높은 연주를 들려준다. 화려함과 서정을 겸비한 '아라스의 중', '서정적인 3소품', '살롱 풍의 두 소품', '소나타 형식의 3소품', '2개의 대연습곡' 등을 수록.



8.570445
비발디: 마니피카트, 살베레지나, 니시 도미누스 외 여러 가수들/ 케빈 말론/ 아라디아 앙상블
케빈 말론과 아라디아 앙상블이 진행중인 비발디 종교음악 시리즈의 3탄. 작곡가가 남긴 마니피카트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대편성작인 RV610을 비롯, 소프라노 독창과 솔로 바이올린 오블리가토의 조화가 매력적인 살베레지나 RV617, 드라마틱한 솔로 모테트 'In furore iustissimae irae', 작곡가의 종교곡 중 인기작에 속하는 'Nisi Dominus' RV608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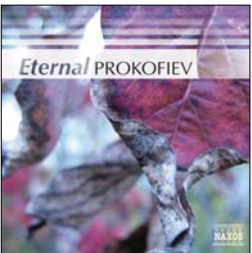
8.570773
마르케비치: 파르티타, 실락원 마르틴 판 덴 호크(pf)/ 여러 가수들/ 크리스토프 린튼-기/ 아르헨헨 필하모닉
키에프 출신의 지휘자 이고르 마르케비치는 작곡가로서도 상당수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신보에는 그가 20대에 완성한 초기 걸작 두 편이 수록되었다. 피아노 독주와 관현악을 위한 '파르티타'는 각기 다른 개성의 3개의 악장 사이의 강렬한 대비효과가 흥미로우며, 밀턴의 작품에 기초한 장대한 오라토리오 '실락원'은 초연 당시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 대왕'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들었던 작곡가의 대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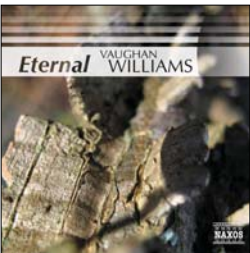
8.559271
아이브즈: 가곡 Vol.3 Various Artists
미국 현대음악의 선구자 아이브즈는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틈틈히 작곡활동을 병행했다. 음악과 일상의 통일을 추구했던 이 작곡가는 군악대 음악, 당시 유행가, 민요, 찬송가 등의 당대의 생활속의 여러 음악들을 자신의 음악 속에 적극 받아들였다. 본 음반에는 13명의 미국의 젊은 성악가들과 3명의 피아노 반주자, 오르간, 글로켄스필주자가 참여하여 당시의 삶을 반영했던 작곡가의 노래들을 다채롭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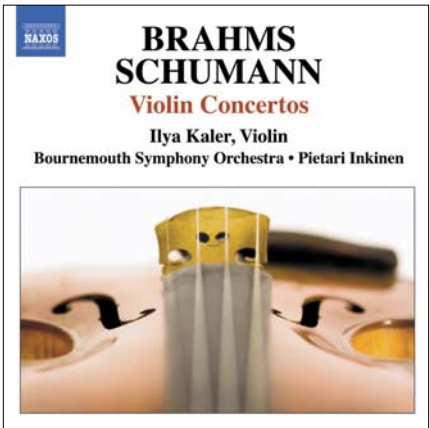
8.660222-23
도니체티: 로베르토 데브루 디미트라 테오도시우스 외/ 마르첼로 로타/ 베르가모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오페라 '로베르토 데브루'는 도니체티가 남긴 여왕 3부작의 하나로 엘리자베스 1세와 그의 총신이자 연인이었던 에섹스 백작 로버트 사이의 애증을 그린 작품이다. 본 음반은 2006년 9월, 도니체티의 본거지인 베르가모에서 있었던 실황이다. 그리스 출신의 대형 소프라노 디미트라 테오도슈가 여왕을 불렀고,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는 유망주 마시밀리아노 피사피아가 타이틀롤을 맡았다.



8.572079
Eternal Prokofiev Various Artists
방탕한 아들' 발체, 피아노협주곡 4번 중 비바체, 오케스트라를 위한 왈츠 모음곡 발체, 교향곡 1번 중 4악장,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발체, 발레 '신데렐라' 발체, 바이올린협주곡 1번 중 스케르초,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콘체르티노 중 알레그레토 등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랑코피에프의 대표작들을 엄선한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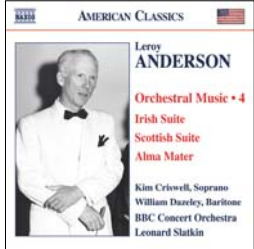
8.572080
Eternal Vaughan Williams Various Artists
올해는 20세기 영국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인 윌리엄 본 윌리엄스의 서거 50주기가 되는 해다. '그린슬리브 환상곡', '탈리스 주제의 환상곡', '날아오르는 종달새', '말벌' 서곡, '다이버스와 라자루스의 다섯 번 주', 발레 '옴' 중 에필로그, 미사 G단조 중 '상투스'와 '아뉴스 데이', 판타지 쿼텟 중 전주곡 등의 인기걸작을 엄선한 베스트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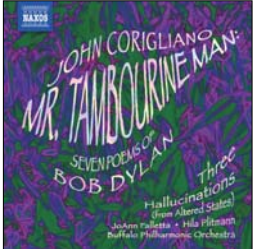
8.570321
브람스 & 슈만: 바이올린 협주곡 일라 칼러(vn)/ 피에타리 인키넨/ 본머스 심포니
사제시간인 슈만과 브람스는 모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요아힘을 위해 바이올린협주곡을 하나씩 완성하였다. 브람스의 작품이 초연과 더불어 큰 성공을 거두며 베토벤의 걸작과 어깨를 나란히 한 반면, 슈만의 작품은 출판도 되지 못한 채 1937년까지 햇빛을 보질 못했다. 86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인 낙소스의 간판 바이올리니스트 일라 칼러와 핀란드의 신성 피에타리 인키넨이 호흡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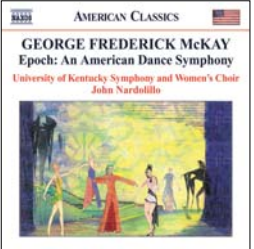
8.570360
베리오: 바이올린 협주곡 2, 3, 5번 필립 쿼트(vn)/ 커크 트레버/ 슬로박 방송교향악단
샤를 오귀스테 드 베리오(1802-70)는 프랑코-벨기에 바이올린 악파의 대부로 평가받는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다. 그는 젊은 활기와 로맨틱한 정서로 총명한 10편의 바이올린협주곡을 완성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현재 입시과제곡의 단골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2번과 3번은 파가니니의 영향을 받은 화려한 기교와 아름다운 선율이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며, 5번은 작곡가의 밝은 성품을 반영한 듯한 유쾌한 작품이다.



8.559381
앤더슨: 아일랜드 모음곡, 스코틀랜드 모음곡, 여름 하늘 외
레너드 슬래트킨/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미국 라이프 클래식의 대명사인 로이 앤더슨. 그의 관현악작품 시리즈의 4번째 음반인 본 신보에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친근한 민요선율들을 차용한 '아일랜드 모음곡'과 '스코틀랜드 모음곡', 맥도웰의 유명한 가곡 '들장미에게'의 아름다운 관현악 편곡, 귀에 익은 캐럴들을 엮은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하버드 스케치'를 개작한 '모교(Alma Mater)', 감각적인 탱고 작품인 'Blue Tango' 등이 수록되었다.



8.559331
코릴리아노: 미스터 탬버린 맨 (밥 딜런의 7개의 시) 외
힐리 플리트만(sop)/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
영화 '레드 바이올린'의 음악가로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현존 작곡가 존 코릴리아노가 완성한 관현악 반주의 연가곡. 세계적인 포크싱어이자 시인인 밥 딜런의 'Mr. Tambourine Man', 'Blowin' in the Wind', 'Masters of War', 'Forever Young' 등을 비롯한 7개의 시에 곡을 붙였다. '3개의 환상'은 켄 러셀의 영화 'Altered States'의 OST를 기초로 완성한 관현악곡으로 '희생', '찬가', '전례'의 3악장으로 구성되었다.



8.559330
맥케이: 신기원(아메리칸 댄스 심포니) 존 나르돌로/ 캔터키 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1935년에 초연된 조지 맥케이(1899-1970)의 '신기원'은 일종의 무용곡의 배경음악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4 시인인 애드가 앨런 포, 윌터 휘트먼, 시드니 레이니어, 칼 샌드버그의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여성 합창을 수반한 2악장 '전원곡'은 자장가와 같은 서정성이 돋보이는 악장이며, 마지막 악장 'Mashine Age Blues'는 산업화된 미래사회의 암울한 이면을 표현한 묵시적인 악장이다.



8.559383
윙클러: 피아노협주곡, 엘리먼트 콘체르티
알렉산더 파니차(pf)/ 안나 라비노바(vn)/ 데이비드 핸델 외/ UNCuyo 심포니 외
아스펜 페스티벌과 링컨 센터 상주 작곡가인 데이비드 윙클러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지금까지 200여 편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피아노협주곡 1번은 독주자의 강력한 힘과 화려한 기교 뿐만 아니라 섬세한 서정까지 필요로 하는 난곡이며, 특히 장송행진곡 풍의 2악장이 인상적이다. 바이올린과 현을 위한 'Elements Concerti'는 4원소인 공기, 대지, 물, 불을 묘사한 4개의 악장들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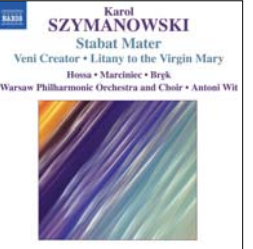
8.570461
아일랜드: 피아노소나타, 전주곡, 2개의 소품, 녹색길 외
존 레네히안 (pf)
아일랜드(1879-1962)의 피아노작품들은 영국 20세기 피아노음악들 중 가장 매력적인 작품들에 속한다. 그의 작품들은 고딕 신비주의, 이교숭배와 같은 작곡가의 다양한 관심사들을 반영한다. 피아노소나타는 서섹스 지역의 고대 신비유적인 Chanctonbury Ring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 4곡의 전주곡 중에는 작곡가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자 인기작품인 'Holy Boy'가 포함되어 있다.



8.570542
린드베르크: 피아노 작품 전집
랄프 판 라트 (pf)
핀란드를 대표하는 현존 작곡가인 마그누스 린드베르크(1958년 생)가 지금까지 완성한 피아노독주곡 전체를 수록한 음반. 음열에 기초한 70년대 작품들인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음악'과 '건반소품'에서부터 '주빌리'와 '연습곡'과 같은 보다 완화된 접근성이 좋아진 최신작들에 이르기까지 이 작곡가의 음악스타일의 변화상을 이 음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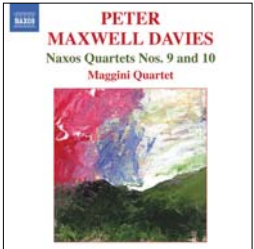
8.555314-16
몬테베르디: 마드리갈 7권
마르코 롱기니/ 델리타에 무지케 몬테베르디는 자신의 마드리갈 7집에 'Concerto'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타이틀이 의미하듯 본 작품집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음악스타일의 작품들이 담겨 있다. 전체 32곡의 수록곡 중 한 곡만이 4성부를 위한 종래의 폴리니 마드리갈일뿐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바소 콘티누오가 덧붙은 당시로서는 '실험적인' 스타일의 음악들로 채워져 있다.



8.570724
시마노프스키: 스타바트 마테르 외 합창음악들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
폴란드 작곡가 시마노프스키의 대표 종교음악들과 기타 합창곡들을 수록한 음반. 스타바트 마테르는 라틴 텍스트가 아닌 폴란드어 번역에 곡을 붙인 독특한 작품으로, 작곡가를 대표하는 드라마틱한 대작이다. 명성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성모 호칭 기도'와 종교적인 기쁨으로 가득한 '오소서 창조주여' 등의 종교합창곡 이외에도 그리스 신화에서 소재를 '데메테르'와 '펜테실레이아'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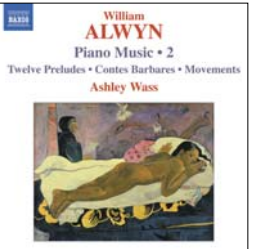
8.559393
모라벡: 체임버 심포니, 가을 노래, 차가운 불
브리지햄튼 체임버 뮤직 페스티벌
매니스 음대와 프린스턴 대학원의 상주작곡가를 역임했던 폴 모라벡은 '템페스트 판타지'로 2004년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체임버 심포니는 2003년 브리지햄튼 체임버 뮤직 페스티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위촉된 작품으로 연주자 개개인의 뛰어난 개인기를 요구하는 작품이다.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부드러운 무언가인 '가을 노래', 플루트와 피아노 오중주를 위한 일종의 체임버 협주곡인 'Cool Fire' 등을 수록.



8.557400
맥스웰 데이비스: 낙소스 사중주 9, 10번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영국을 대표하는 현존 작곡가의 한 사람인 피터 맥스웰 데이비스가 낙소스의 위촉을 받아 진행 중인 10편의 낙소스 현악사중주 시리즈의 마지막 두 작품을 낙소스의 간판 실내악단인 마기니 사중주단의 연주로 수록하였다. 9번은 수확자인 동시에 멘체스터의 시장을 역임했던 캐슬린 올레렌쇼에게 헌정된 작품이며 10번은 이 창의적인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곡가의 담담한 소회로 담겨있다.



8.572033
페트리트 체쿠 기타 리사이틀
JS 바흐, 레곤디, 아센시오, 로드리고의 기타 작품들
2007년 미켈레 피탈루가 콩쿠르의 우승자인 크로아티아 출신의 기타리스트 페트리트 체쿠의 낙소스 데뷔음반.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BWV1003의 기타 편곡과 더불어, 각각 19세기와 20세기를 대표하는 기타 작곡가인 줄리오 레곤디의 연습곡 4,6번과 로드리고의 '기타 찬가', 스페인 발렌시아 출신의 20세기 작곡가 빈센테 아센시오의 기교적인 난곡인 '발렌시아나 모음곡'을 수록하였다.



8.570464
얼윈: 12개의 전주곡, 폴 고갱 오마주, 수선화, 무브먼트 외
애슐리 워스 (pf)
얼윈(1905-85)의 피아노작품들은 리스트나 라흐마니노프와 같은 로맨틱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는 한편, 인상주의의 영향도 함께 보여준다. 초절기교와 섬세한 표현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화려한 콘서트용 작품인 12개의 전주곡, 밤의 서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사냥꾼의 달', 타히티의 이국적인 정취를 담은 '원시아야가-고갱 오마주', 우아한 왈츠 '신데렐라', 소나타 풍의 대작인 '무브먼트' 등 다양한 개성의 작품들을 수록.



8.557567
슈베르트: 슈베르트의 친구들 Vol.3
라이너 트로스트 (te)/ 올리히 아이젠로어 (pf)
다섯의 28번째 음반. 작곡가의 가까운 친구들이 쓴 시에 곡을 붙인 가곡들을 수록한 세 번째 음반이다. 슈베르트 자신의 시에 곡을 붙인 '작별', '비밀'과 '폭풍 후'를 비롯한 6곡의 마이여호프리트, 그리고 '어부 이야기', '가수의 선물', '무덤파는 이의 노래', '언덕 위의 소년', '축복 받은 세계' 등의 인기 가곡들이 수록되었다.



8.559272
아이브즈: 가곡집 Vol.4
여러 연주자들
미국 현대음악의 선구자 아이브즈는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틈틈히 작곡활동을 병행했다. 음악과 다선의 28번째 음반. 작곡가의 가까운 친구들이 쓴 시에 곡을 붙인 가곡들을 수록한 세 번째 음반이다. 슈베르트 자신의 시에 곡을 붙인 '작별', '비밀'과 '폭풍 후'를 비롯한 6곡의 마이여호프리트, 그리고 '어부 이야기', '가수의 선물', '무덤파는 이의 노래', '언덕 위의 소년', '축복 받은 세계' 등의 인기 가곡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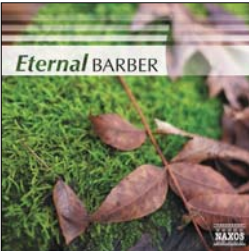
8.660225-26
볼프 페라리: 영리한 미망인
여러 가수들/ 카를 마르틴/ 베니스 라 페니체 오페라
볼프 페라리의 코믹 오페라 '영리한 미망인'은 골도니의 희곡에 기초한 작품으로 18세기의 오페라 부파의 전통을 충실히 모방하였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온 네 구혼자와 영리한 미망인 로사우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펼쳐진다. 2007년 베니스의 유서 깊은 라 페니체 극장에서 골도니의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여 펼쳐진 실험을 고스란히 수록한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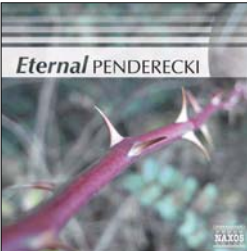
8.572132
Eternal Satie
Various Artists
짐노페디 1,2,3번, 그노시엔느 1번, 서늘한 소품집 1, 2번, 배 모양의 3개의 소품, 도깨비 상자, 피카딜리, 사라방드 3악장, 널 갖고 싶어, 영성한 전주곡, 왈츠 발레, 장미와 십자가의 소네리, 짐노페디 1번(하프와 현을 위한 편곡) 등 에릭 사티의 대표 피아노작품들을 수록한 컴필레이션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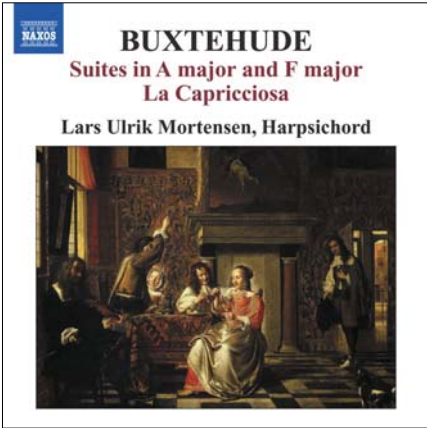
8.572131
Eternal Beethoven
Various Artists
교향곡 9번 '합창' 피날레,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피아노트리오 유령 중 라르고, 월광소나타 1악장, 교향곡 7번 중 알레그레토, 에그몬트 서곡, 엘리제를 위하여, 첼로소나타 Op.5-1의 론도 알레그로, 교향곡 5번 중 알레그로 콘 브리오 등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선율들을 엄선한 컴필레이션 음반.



8.572133
Eternal Barber
Various Artists
현을 위한 아다지오, 부활절 코랄, 교향곡 2번 중 안단테, 피아노협주곡 중 칸초네, 3개의 스케치, 미디어 발레 모음곡, 바흐로부터의 변화, 추억, 아상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 첼로협주곡 중 안단테, 관현악을 위한 첫 에세이, 아누스 데이(현을 위한 아다지오의 합창 버전) 등 사무엘 바버의 대표곡들을 엄선한 컴필레이션 음반.



8.572134
Eternal Penderecki
Various Artists
히로시마 희생자들을 위한 애가, 폴란드 레퀴엠 중 입당송과 샤콘느, 교향곡 7번 중 마그누스 도미누스, 바이올린소나타 2번 중 알레그레토, 교향곡 1번 중 arche 1, 다비드 시편 143, 교향곡 8번 중 2악장, 교향곡 3번 중 안단테, 누가수난곡 중 시편 9와 예레미야의 애가, 바이올린소나타 1번 중 안단테,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소품 중 안단테 칸타빌레, 폴리모르피아



8.570581
북스테후데: 하프시코드 모음곡 A장조, F장조, 칸초네타, 전주곡
라스 울릭 모르텐센(cemb)
존 홀로웨이와 함께 했던 북스테후데의 실내악시리즈로 큰 화제를 낳았던 덴마크의 정상급 하프시코드주자 모르텐센이 들려주는 북스테후데의 세 번째 건반작품집. 다카포의 음원이 나소스를 통해 재발매된 것으로, 두 편의 춤곡모음곡, 정교한 대위법을 보여주는 칸초네타, 바흐의 골드베르크변주곡을 예견하는 듯한 작품인 32개의 파르티타(변주)로 구성된 라 카프리지오사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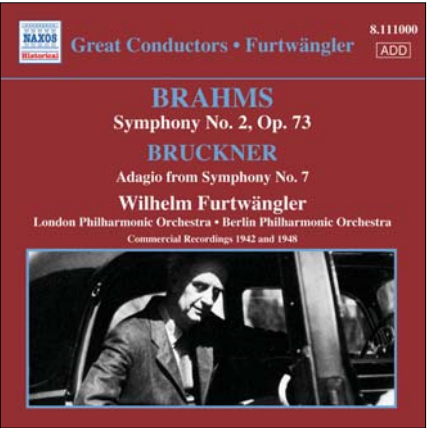


8.570716
무스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여러 편곡 모음), 리스트: 피아노협주곡 1번
펑펑(pf)/ 레너드 슬래트킨/ 내시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펑펑은 2002년 9세의 나이로 중국 청소년 피아노 경연에서 우승한 음악신동이다. 리스트 피아노협주곡 1번은 14살 때 공연한 실황을 별도의 편집 없이 수록한 것으로 이 영재의 놀라운 기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수록된 전람회의 그림은 라벨, 아쉬케나지, 우드, 쿠엘렌, 푼텍, 스토코프스키 등 15명의 편곡자들의 편곡을 지휘자 슬래트킨이 하나씩 발췌하여 엮은 독특한 버전으로 수록하였다.



Naxos Historical

www.naxos.com



8.111000
브람스: 교향곡 2번, 브루크너: 교향곡 7번 2악장
빌헬름 푸르트뱅글러
런던 필하모닉(브람스), 베를린 필하모닉(브루크너)
1948년 런던 킹스웨이 홀에서 녹음된 브람스 교향곡 2번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완성된 거장의 유일한 동곡 레코딩이다. 극단적인 템포와 다이나믹의 변화를 통해 브람스 특유의 진한 낭만성을 훌륭히 드러낸 연주이며, 텍카 기술진이 포착해낸 사운드 역시 녹음시기에 비해 대단히 우수하다. 2차대전 중인 1942년 베를린 필을 지휘해서 녹음했던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의 아다지오 악장(텔레폰켄 음원)이 함께 수록되었다.



8.111326
요제프 호프만: 어쿠스틱 레코딩 1916-23
쇼팽, 리스트, 슈베르트, 멘델스존, 모즈코프스키, 파데레프스키, 라흐마니노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한 사람이자 세계 최초의 피아노녹음을 남긴 장본인인 요제프 호프만이 20세기 전반기에 남긴 대표적인 어쿠스틱 레코딩들을 모았다. 쇼팽의 '죽음환상곡', '베틀레', '군대폴로네이즈', '왈츠', 리스트의 '헝가리 랍소디 2번' '베네치아와 나폴리', 리스트 편곡의 슈베르트 '마왕', 파데레프스키의 '미뉴엣',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일부, 모즈코프스키의 '스페인 카프리스' 등을 수록.



8.111295
캐슬린 페리어: 바흐와 헨델의 알토 아리아들
미사 B단조, 요한수난곡, 칸타타 BWV11, 메시아, 삼손, 유다스 마카베우스
전설의 콘트랄토 캐슬린 페리어가 노래하는 바흐와 헨델의 알토 아리아들. 1952년 킹스웨이 홀에서 녹음된 텍카 음원으로 마태수난곡 중 'buss un reu', 미사 B단조 중 'gui sedes', 'agnus dei', 요한수난곡 중 'es ist vollbracht', 메시아 중 'he was despised', 유다스 마카베우스 중 'father of heaven' 등의 대표아리아들이 수록됨. 1949년 녹음된 바흐의 칸타타 '주를 찬양하라' BWV11 전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111307
푸치니: 외투
티토 곱비, 마가렛 마스, 자친토 프란델리 외/ 빈센초 벨레차/ 로마 오페라
전설적인 바리톤 티토 곱비가 푸치니의 3부작 중의 첫 작품인 <외투>를 노래하였다. 1955년 로마에서 녹음된 EMI의 음원으로 이 위대한 가수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만나볼 수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걸출한 테너 자친토 프란델리와 프랑스 출신의 소프라노 마가렛 마스가 호흡을 맞추었으며, 베티랑 오페라 지휘자 빈센초 벨레차가 지휘봉을 잡았다.

DACAPO Dacapo

www.dacapo-records.dk



BBC Music Magazine,
The Times 추천음반

6.220509

가데: <질투>를 비롯한 탱고와 왈츠, 관현악 소품
마티아스 애슈바허/ 오덴세 심포니 오케스트라
덴마크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야콥 가데는 '질투' 한 곡으로 세
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다. 매력적인 탱고인 '질투' 외에도 시
골 결혼식의 소박하고 흥겨운 정취를 묘사한 '히멜핀드의 결혼식', 제
목 만큼이나 감미로운 '사랑의 모음곡',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를 연
상케 하는 'Douce Secrets' 등등 누구나 쉽게 빠져들게 되는 친근한
느낌의 관현악 소품들이 음반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OUR Recordings

www.our-recordings.com



Classicstoday 10/10

6.220570

모차르트: 플루트 사중주 K.285, 285a, 285b, 298
미칼라 페트리(rec)/ 카롤린 비트만(vn)/ 올라 우리요나(va)/ 마르타 수드라바(vc)
리코더의 여왕 미칼라 페트리가 모차르트의 플루트 사중주들에 도전하
였다. 이 음반을 들으면 모차르트가 일반적인 플루트가 아닌 리코더를
위해 이 작품들을 완성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리코더의
청량한 음색과 모차르트의 천진한 악상들이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낸
다. 각 악기들의 사운드를 생생하게 포착해낸 뛰어난 녹음과 SACD가
제공하는 입체음향이 연주의 진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Phoenix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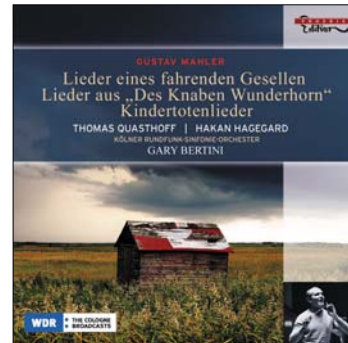
www.phoenixedition.com



103

슈니트케: 피아노협주곡 1-3번 (Hybrid-SACD)
에바 쿠피에츠, 마리아 레트베르크(pf)/ 프랑크 슈트로벨/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망명 이후 알프레드 슈니트케는 쇼스타코비치 이후 구 소련이 배출한
가장 걸출한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그
의 작품들은 대중들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그 26세 때 완성
한 피아노협주곡 1번 역시 2005년 쿠피에츠에 의해 연주되기까지 제대
로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었다. 본 음반은 그가 피아노를 위해 남긴 3편
의 협주곡(3번은 4손을 위한 협주곡이다)을 모두 수록하였다.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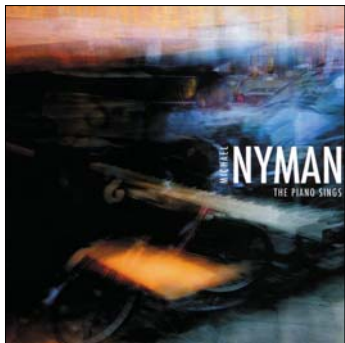
말러: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죽은 자식을 그리는 노래 외
토마스 크바스토프, 호칸 하겐고드(br)/ 게리 베르티니/
WDR 심포니 오케스트라

위대한 말러 지휘자 게리 베르티니와 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의 표본이
자 현존 최고의 바리톤인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만남을 담은 특별한 음
반. 말러의 두 대표 연가곡인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를 15년 전 크바스토프의 상상한 목소리로 만나볼 수 있
다. 특히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는 1993년 실황 녹음이다. 스웨덴
출신의 명 바리톤 호칸 하겐고드가 노래하는 '어린이의 이상한 풀피리'
의 일부가 함께 수록되었다.

MN Records

MN Records는 칸느 영화제 대상수상작인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피아노>로 국제적인 영화음악작곡가로
급부상한 영국 작곡가 마이클 니만이 설립한 독립 레이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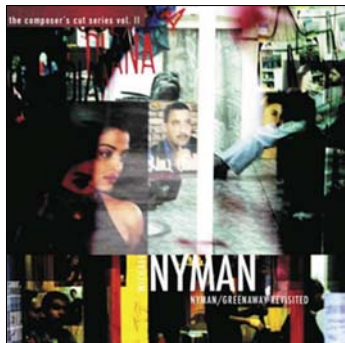
www.mnrecords.com



MNRC103

니만: The Piano Sings
마이클 니만 (pf)

마이클 니만의 작품들 중에서 서정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피아노 솔
로 작품들만을 담은 베스트 음반. 칸느 그랑프리작 '피아노'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국내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인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와 'Big my secret', 'Lost & Found' 외에도
영화 '안네 프랑크의 일기' 중의 'If, Why', 에단 호크와 우마 서먼이
주연한 헐리우드 영화 '가타카' 중 'The Morrow', 'The Departure'
등등 니만 특유의 감미로운 선율로 가득한 작품들을 작곡가 자신의 피
아노 연주로 새롭게 녹음하였다. 클래식은 물론 뉴에이지 음악 애호가
들에게도 크게 환영받을 수 있는 음반.



MNRC106

니만: Nyman-Greenaway Revisited
마이클 니만 밴드

마이클 니만은 초창기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로 유명한 영화감독 피터 그리너웨이의 긴밀한 협
력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음반은 그리너웨이의 영화를 위해 니만이 작
곡했던 OST 중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곡들을 엄선한 음반.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원제 The Draughtsman's Contract), '프로스페로
의 재해',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 '차레로 역사시키
기', '하나의 Z와 2개의 O' 등 그리너웨이의 대표작들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던 니만의 감각적인 선율과 박력넘치는 리듬을 담은 음악들을 만
날 수 있다.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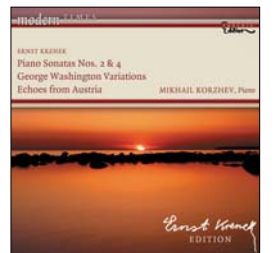
구를리트: 고야 교향곡, 4개의 극적인 노래
크리스티안네 월체(sop)/ 안토니 보몽/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만프레드 구를리트는 불운이 연속되었던 작곡가다. 그의 대표 오페라인
'보체크'는 베르크의 동명 걸작에 완전히 가려졌고, 또 다른 희심작인
'나니'는 나치에 의해 상연 금지되었다. 나치를 피해 일본으로 도피했
던 그는 NHK 교향악단의 상임을 맡는 등, 일본 음악계의 발전에 기여
했다. 고야 오페라는 고야의 여러 그림들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한 작품
으로, 특히 3악장 '반역자들의 처형'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을 연
상케 하는 섬 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4개의 극적인 노래'는 R 슈트
우스의 걸작을 충실히 계승한 작품이다.



104

모차르트: 오페라 <극장 지배인>
KV 486
나델만, 실라, 오디니우스 외/ 네
빌 매리너/ 베를린 도이치 심포
니 오케스트라

2006년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있었던 콘서트 형식의 실황을 고
스란히 수록한 음반. 모차르트의
'극장지배인'은 황제 요제프 2세
의 명으로 완성한 유쾌한 단막
희극이다. 왕년의 명배우이자
오페라 연출가로도 유명한 오토
센크가 극장지배인역을 맡아 객
석과 친밀한 교감을 나누며, 베
테랑 네빌 매리너의 노력한 지휘
가 작품의 경쾌 발랄한 매력을
한껏 북돋운다.



129

크레넥: 피아노 소나타 2,4번,
조지 워싱턴 변주곡 외
마하일 코르체프 (pf)
오스트리아 작곡가 에른스트 크
레넥은 얼마 말러가 남편의 교향
곡 10번의 완성을 처음 맡겼던
작곡가였으며, 잠시나마 그의 사
위가 되기도 했었다. 나치의 탄
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으며,
후기낭만주의를 답습했던 음악
스타일 역시 신고전주의를 거쳐
12음기법과 무조음악 쪽으로 변
화해 갔다. 본 음반에 수록된 그
의 피아노 작품들 역시 작곡가의
이러한 음악스타일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존 애덤즈: 원자폭탄 박사

원폭개발자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 부부의 고뇌를 그린 화제작

〈원자폭탄 박사〉는 연출가로 유명한 피터 셀라스가 대본을 쓰고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인 미국의 존 애덤즈가 곡을 붙인 것이다. 내용은 세계 최초의 원폭을 개발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와 그가 이끈 로스 알라모스의 원폭실험팀에 관한 것인데, 특히 박사의 아내인 키티에게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국은 원폭 실험이 있기 한 달 전과 원폭 실험이 있던 1945년 7월 15일의 두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터 셀라스는 기밀에서 해제된 미국 국가문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대본을 썼고, 존 애덤즈는 악구를 반복하는 미니멀리즘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극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하여 음악적인 풍성함을 회피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2005년에 초연된 현대 오페라이면서도 음악적으로 덜 난해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심리적인 혼란을 잘 묘사하고 있다. 본 영상물은 대본을 쓴 피터 셀라스가 직접 연출한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초연된 프로덕션을 네덜란드 오페라에서 재공연한 2007년 6월의 최신 실황이다. 애초부터 자신의 연출을 염두에 두고 쓴 대본답게 셀라스는 지극히 잘 계산된 무대와 연기를 창조했다. 초연 당시에도 타이틀 롤을 맡았던 제랄드 핀디가 열연한다.

[보충 자료]

○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1904~1967)은 독일계 미국인으로 태어났고 미국, 영국을 거쳐 박사학위도 조상의 나라인 독일 괴팅겐에서 받았다. 유럽에서 지낸 시절에 한때 좌파 친구들을 많이 사귀 바람에 미국에 돌아와 원폭 개발을 지휘하는 동안에도 사상적인 감시를 받고 있었으며, 그 자리를 물러난 다음에는 보다 노골적인 혐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존슨 대통령에 의해 명예를 회복하고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 존 애덤즈(1947~)는 포스트 미니멀리즘 작곡가로 명성이 높다. 특히 오페라로 유명한데, 〈중국의 낙선〉, 〈클링호퍼의 죽음〉, 〈엘 니뇨〉등의 대표작을 갖고 있다. 그는 현대의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잘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자폭탄 박사〉 또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터 셀라스(1957)는 미국 피츠버그 태생의 오페라 연출가다. 그저 평범한 연출가가 아니라 항상 파격적인 해석으로 화제를 몰고다니는 편인데, 모차르트-다 폰테 삼부작, 헨델의 〈줄리오 체자레〉같은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물론 좋은 평만 듣는 것은 아니어서 작곡가의 의도와 무관한 해석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선구자적 오페라 연출가라는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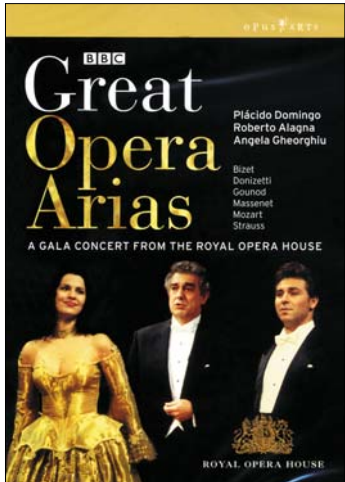
감동적인 명연으로 기록된 1994년 코벤트가든 로열 오페라 실황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는 쓰리 테너를 잇는 '제4의 테너'라는 별명을 처음으로 얻었던 스타 테너인데, 그가 세계적 테너로 발돋움한 결정적인 계기는 1994년 런던의 코벤트가든에서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을 부른 것이다. 이탈리아계지만 프랑스 국적의 테너답게 당시 31세의 알라냐는 너무도 아름다운 불어 발음으로 로미오의 비극을 지극히 유려하게 그려냈다. 줄리엣을 부른 소프라노 레온티나 바두바도 스타덤에 올랐다. 루마니아 민속가수 출신인 당시 30세의 바두바는 줄리엣에 어울리는 가녀린 음성과 소녀에 어울리는 외모는 물론이고 출중한 연기력으로 관객과 평단을 사로잡았다. 특히 4막에서 로렌스 신부가 준 가사(假死)의 약을 잔뜩 겁먹은 채로 마시는 장면은 어떤 배우라도 흉내 내기 어려울 정도의 압권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이전부터 이탈리아 베로나 지방에 전승된 민담이다. 이걸 오페라로 만든 것으로는 벨리니의 〈카롤레티 가와 몬테키 가〉, 잔도나이의 〈줄리에타와 로미오〉 등도 있지만 구노의 것이 최고로 꼽힌다.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도 2시간 50분이 소요되는 대작인데, 마지막 장면은 원작과 달리 로미오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줄리엣이 깨어나 슬픔을 더한다.

[보충 자료]

○ 프랑스의 샤를 구노(1818~1893)는 로마 대상을 받고 로마 유학을 다녀왔을 정도로 출중한 재능을 인정받았으면서도 원래는 사제가 되기를 고집했을 만큼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사제 서품 후 조선에 파견될 예정이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사제의 길을 접었다고 한다. 그가 조선에 왔다면 〈파우스트〉나 〈로미오와 줄리엣〉같은 명작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튼 그의 오페라에 그려진 사랑이 한결같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제를 꿈꾸었던 성품이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의 대표작은 프랑스보다 대개 외국의 명작을 다룬 것이지만 여기에 프랑스 고유의 서정적인 감각을 불어넣음으로써 독특한 위상을 확보했다.

○ 로베르토 알라냐는 이 공연이 있던 2년 후에 뉴욕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와 결혼식을 올렸다. 흥미로운 점은 게오르규가 이 영상물에 줄리엣으로 출연한 바두바와 같은 루마니아 출신이고 연배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게오르규로서도 남편 알라냐가 바두바와 펼쳤던 감미롭고도 격정적인 애정 연기를 잘 알고 있었을 테니 그래서 일종의 질투심이 발동했는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농담처럼 밝힌 적이 있다. "항상 남편과 공연할 거냐구요? 꼭 그럴 수는 없지요.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만큼은 함께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페라에는 정말 진한 스킨십이 필요하거든요. 남편이 다른 소프라노와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걸 방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OpusArte DVD OA R3109D

1996년 코벤트가든 오페라 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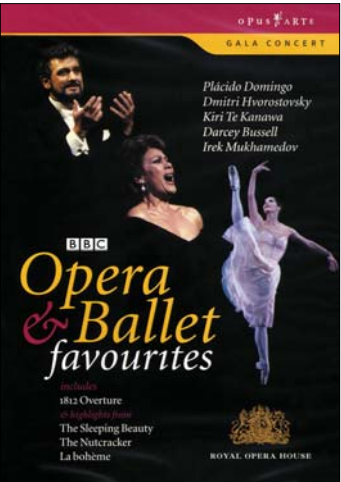
신혼의 알라냐-게오르규 부부가 제왕 도밍고와 함께 한 1996년 갈라

1990년대 초반부터 몇몇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급으로 부상한 이탈리아계 프랑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루마니아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는 각각 1994년에 런던 코벤트가든에서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로 세계적인 가수의 반열에 올랐다. 그 이전에 <라보엠>을 함께 공연하기도 했던 두 사람은 알라냐가 첫 아내와 사별하고 게오르규가 첫 남편과 갈라선 다음인 1996년 5월, 뉴욕에서 당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의 주례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려 큰 화제가 되었다. 본 영상물은 그해 12월 코벤트가든에서 열린 갈라다. 파바로티를 제치고 오페라계의 황제로 등극한 플라시도 도밍고가 호스트 역할을 하고 아직 신혼이던 알라냐-게오르규 부부를 위시한 코벤트가든의 젊은 대가들을 초청하는 형태로 음악회를 연 것이다. '금과 은의 갈라'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는데 도밍고는 마지막 무대에 직접 지휘대에 서서 레하르의 '금과 은' 왈츠를 지휘한다. 루마니아의 레온티나 바두바(소프라노), 미국의 수잔 그레이엄(메조소프라노), 드웨인 크로프트(바리톤), 영국의 로버트 로이드(베이스), 칠레의 베로니카 빌라로엘(소프라노) 등 현재도 맹활약하고 있는 최고 명가수들의 12년 전 모습을 만끽할 수는 초호화판 갈라다. 화질, 음질도 최상급이다.

[보충 자료]

○ 플라시도 도밍고(1941~)는 테너로서도 단연 최고이지만 지휘자로서도 꾸준히 성가를 쌓아나갔으며 오페라 행정가로는 더욱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오페라계의 팔방미인이다. 언제 시간을 내어 그토록 많은 일을 해내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그는 가수들의 대부 역할도 한다. 도밍고 콩쿠르에 입상한 가수들이 좋은 성장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알라냐의 경우 이 콩쿠르 출신은 아니지만 '제4의 테너'라는 별명을 얻으며 급부상한 시기에 도밍고가 호평을 아끼지 않았으니 역시 도움을 받은 셈이다. 도밍고는 지금도 여전히 노래실력과 열정으로 세계 극장가를 지배하고 있다.

○ 로베르토 알라냐(1962~)는 이탈리아 출신 부모 밑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덕분에 프랑스어와 이태리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행운을 타고났다. 성악에는 비교적 늦게 입문하였지만 유려한 창법과 절륜의 테크닉, 놀라운 폐활량을 자랑하며 '제4의 테너'라는 명성을 얻었다. 2006년 12월 라 스칼라에서 공연 도중 일부 관객의 야유가 나오자 그대로 퇴장해버린 사고를 일으켰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테너임은 틀림없다. 안젤라 게오르규(1965~)는 루마니아에서 공부를 마치고 런던으로 건너와 잠시 자국의 선배 소프라노 일레아나 코투르바스를 사사했다. 온 몸의 기를 모아 부르는 압도적인 창법과 여왕처럼 도도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세계 오페라 팬을 사로잡았다.



OpusArte DVD OA R3110D

차이코프스키 발레 & 오페라 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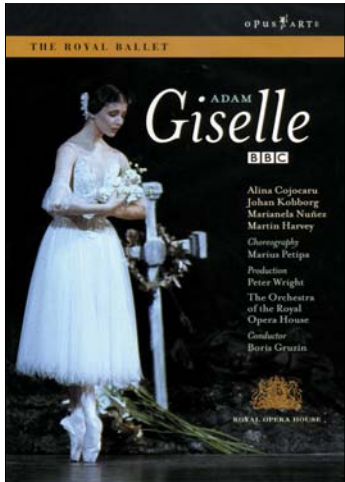
차이코프스키 100주기(1993년)로 펼쳐진 코벤트가든 최고의 갈라

1993년은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1840~1893)의 타계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여 세계 공연계의 중심지 중 하나인 런던의 코벤트 가든에서 갈라 콘서트가 열렸다. 영국이 자랑하는 이 극장의 상주단체인 로열 발레, 로열 오페라 합창단,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에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 키리 테 카나와까지 참여한 성대한 실황이다. 발레 비중이 오페라 못지않게 큰 것은 차이코프스키 발레로 명성이 높은 로열 발레의 위상 덕분이다. 이 발레단의 국제적 스타 레슬리 콜리어, 다시 버셀, 비비아나 두란테, 이렉 무하메도프, 여기에 일본인 남성 무용수로는 최초로 세계적 반열에 오른 쿠마카와 데쓰야까지 가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공연되지 않는 차이코프스키 오페라들의 명장면들, 역시 보기 드문 20세기의 고전발레 '차이코프스키 파드되'와 '아나스타샤' 일부까지 수록되었다. 관현악곡으로는 '1812년 서곡'이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며 림스키코르사코프, 라흐마니노프, 푸치니는 맛갈스런 디저트다.

[보충 자료]

○ 세계적인 공연장은 오페라단뿐 아니라 발레단과 전속 오케스트라까지 거느리는 경우가 많다. 런던 코벤트 가든의 경우 '왕립'을 뜻하는 로열 오페라와 로열 발레를 소속단체로 둔 최고 권위의 극장이다. 그런데 오페라단과 발레단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니 이는 주역급의 상근여부다. 독일권을 제외한 세계의 오페라단은 대부분 주역을 정규단원으로 두지 않고 수시로 캐스팅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발레단은 주역무용수까지 정단원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이다. 로열 발레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레슬리 콜리어, 이렉 무하메도프, 다시 버셀 등 세계적 무용수가 모두 정단원인 반면, 본 갈라에 로열 오페라 댁으로 출연한 플라시도 도밍고,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 키리 테 카나와는 동 오페라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매시즌 출연해왔지만 오페라단에 속한 가수들은 아니다.

○ 수록된 작품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은 오페라에서 <올란타>, 발레에서 <아나스타샤>이다. <올란타>는 차이코프스키 말년에 작곡된 동화적인 작품인데 그의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로 회자되기도 한다. <아나스타샤>는 극적인 표현에 능한 케네스 맥밀란이 러시아 황실의 역사에서 취재한 것으로 일부 장면이지만 영상물로는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출연자 중에는 <호두까기 인형> 파드되에 출연한 쿠마카와 데쓰야에 주목하기 바란다. 서양 무용수를 능가하는 놀라운 테크닉의 소유자인 그는 로열 발레의 수석무용수를 거친 후 일본에 복귀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K-발레단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OpusArte DVD OA 0993D

아당: 지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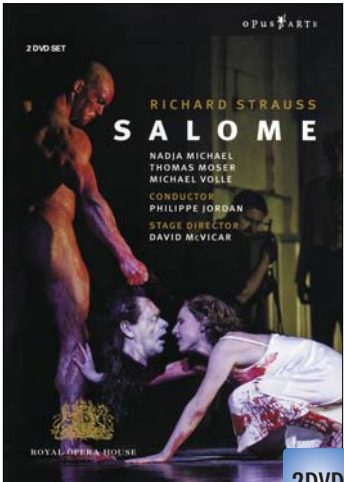
우리 시대의 전설, 알리나 코조카루의 <지젤>을 드디어 만나다!

프랑스 낭만 발레를 대표하는 걸작 <지젤>은 지금까지 수많은 영상물이 출시되었고 그중에는 기념 비적인 명연도 몇 개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DVD에 주목하는 이유는 로열 발레의 자존심, 알리나 코조카루가 추는 <지젤>이기 때문이다. 1981년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태어난 코조카루는 1999년 로열 발레에 입단하여 2년 만에 주역 무용수(프린시פל)가 되었으며 곧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발레리나가 되었다. 영국 발레계에서 코조카루의 위상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동생' 내지 '국민 소녀'라 할 정도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발레리나이자 동작 하나하나에 발레에 대한 열정과 통찰력이 살아 숨쉬는, 그야말로 젊은 나이에 전설이 된 스타인 것이다. 본 영상물은 2006년 1월, 로열 발레의 본거지인 코벤트가든 실황이다. 1884년 이 발레를 전면 개정한 마리우스 프리파의 판본에 입각한 것임을 명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터 라이트가 연극적인 측면을 대폭 보강하여 우리가 익히 보아온 <지젤>과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코조카루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인 덴마크 출신의 요한 코보그가 알브레히트를 맡았다.

[보충 자료]

○ <지젤>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발레다. 연인에게 속은 지젤이 실성하여 죽는다는 1막의 피날레가 낭만주의적이고, 2막에 등장하는 일종의 처녀 귀신인 '빌리'가 그런 존재다. 낭만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고 인간 내면의 어두운 모습을 파헤치고자 한 예술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1막과 2막의 대조효과가 훌륭한데, 1막은 시골 전원이요, 밝은 낮의 세계이며, 지젤은 순진한 시골 처녀인 반면 2막은 묘지가 산재한 으스스한 숲 속이요, 어두운 밤의 세계이며, 지젤은 빌리의 법칙을 무시하고 연인의 목숨을 지키는데 헌신하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젤>은 2막이 훨씬 더 중요한 발레이자, 보고 난 다음에는 긴 여운이 남는 불후의 명작이다.

○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태어난 코조카루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 발레를 익히고 1997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최고 권위의 청소년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6개월간의 로열 발레 연수기회가 주어졌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코조카루는 각고의 노력 끝에 로열 발레의 군무단원직을 제 안받았지만 키예프 발레단 주역으로 입단하는 길을 택했다. 짧은 기간동안 키예프 발레단에서 다양한 주역을 경험한 후에 다시 로열 발레에 입단하여 단시간만에 동 발레단의 간판스타가 되었다. 코조카루의 레퍼토리는 다양하지만 <지젤>은 코조카루가 가장 잘 추는 대표작의 하나다.



OpusArte DVD OA 0996D

R 슈트라우스: 살로메

나디아 미카엘(살로메)/ 토마스 모저(헤롯)/ 미카엘 플레(요한안)/ 미카엘라 슈트터(헤로디아스)/ 필립 조르당(지휘)/ 로얄 오페라 하우스 코벤트 가든

2008년 3월 로얄 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든 무대에서 펼쳐졌던 R 슈트라우스의 '살로메'는 영국 오페라계의 크나큰 충격파를 안겨주었던 화제만발의 공연이었다. 항상 폭력적이고도 음란한 연출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악동 연출가 데이비드 맥비카의 악취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R 슈트라우스의 첫 오페라 출세작인 '살로메'는 복음서에 기록된 세례요한의 마지막 순간을 자극적으로 각색해놓은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에 기초한 작품이다. 근친애, 스트립 댄스, 잔혹한 참수, 질린 머리에 대한 끔찍한 애정행각 등등 온갖 문란하고도 참혹한 소재들이 등장하는 이 문제의 오페라는 맥비카의 그로테스크하고도 에로틱한 개성을 맘껏 펼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작품 후반부를 뒤덮는 붉은 선혈과 너무나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요한안의 잘린 목은 웅만한 호러무비를 능가하는 공포감을 안겨주며, 정상급 오페라무대를 통해 현역 최고의 살로메로 급부상한 나디아 미카엘의 혼신의 열연은 맥비카가 정성껏 준비한 잔혹 드라마의 놀라운 정점을 만들어낸다. 우람한 저음이 돋보이는 토마스 플레의 열창과 비정상적이 헤롯의 행태를 리얼하게 연기한 토마스 모저의 열연도 놓칠 수 없으며, 망나니 역에 특별 채용된 보디빌더 출신 배우의 근육질 몸매는 색다른 볼거리를 안겨준다.

[보충 자료]

○ 살로메의 이야기는 복음서(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기초한다. 봉분왕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스와 결혼한다. 세례요한이 이를 나무라자 헤롯은 그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버린다. 한 잔칫날 헤로디아스의 딸(복음서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며, 살로메라는 이름은 구전된 것이다.)이 춤으로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하자, 헤롯은 그 딸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약속한다. 헤로디아스는 딸에게 요한의 목을 요구하라고 주문했고, 결국 요한은 목이 잘려 죽게 된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은 이 이야기에 헤롯과 조카 살로메 사이의 근친애, 요한에 대한 살로메의 병적인 집착, 시신에 대한 애정표현 등을 첨가하여 보다 자극적인 느낌으로 각색되었다.

○ 라이프치히 출신의 소프라노 나디아 미카엘은 슈투트가르트 음악원과 미국 인디애나 대학 음대에서 노래를 배웠다. 처음에는 메조소프라노로 캐리어를 시작하였으나, 소프라노로 전향한 이후 본격적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토스카, 산투차, 피델리오, 레이디 맥베스, 살로메와 같은 격정적인 캐릭터에 능하며, 특히 현재 천부적인 살로메로서 일급 오페라극장들을 누비고 있다. 2007년 2월 밀라노 라스칼라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후 베를린 슈타츠포켈레, 로얄 오페라 코벤트가든 등에서 같은 역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맥비카는 그간 선정적이고도 파격적인 무대로 많은 화제를 낳았던 연출자다. 그가 코벤트가든의 무대에 올렸던 <마술피리>, <리골레토>, <피가로의 결혼> 그리고 글라인드본에서 연출했던 헨델의 <줄리오 체사레>등이 이미 Opus Arte를 통해 DVD로 발매되었었다. 특히 <줄리오 체사레>는 2006년 그라모폰 어워드에서 최우수 DVD로 선정되기도 했다.



차세대 HD미디어 블루레이(Blu-ray)란?

블루레이 디스크는 650nm(나노미터) 파장의 적색 레이저를 사용하는 DVD에 비해 더 짧은 파장의 405nm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하기에 블루레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4.7G 용량의 DVD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50G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프로페셔널 레코딩은 물론, 영화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선명한 고화질 영상과 손실 없는 사운드까지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고안된 차세대 미디어입니다.

초 고선명 HD화질: SD급(720x480) DVD에 비해 약 6배가 많은 1,080x1920 화소를 갖는 블루레이는 FULL HD 영상을 제공합니다. DVD에 담긴 영상의 정보량이 1.5Mbps수준인데 비해 블루레이에 담긴 영상 정보량은 초당 20M~35Mbps에 이를 정도로 배우들의 숨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하면서도 영상 다이내믹레인지가 뛰어난 고품위 영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손실 없이 원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고품질 사운드: 블루레이 디스크에 담긴 음원은 무손실 PCM 신호를 기본으로 합니다. 초당 평균 전송량이 약 2M~18Mbps에 이르니 기존의 돌비디지털 640kbps와 DTS 1.5Mbps에 비해 얼마나 많은 정보량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질의 투명성과 공간감에서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고, 배우들의 목소리 톤이 명확해져 영화나 공연 타이틀 감상 시 한층 자연스러운 현장감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다양한 부가기능의 쌍방향 인터랙티브: 블루레이는 재생 중 팝업메뉴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퀴즈 게임은 물론, 배우나 감독 등의 연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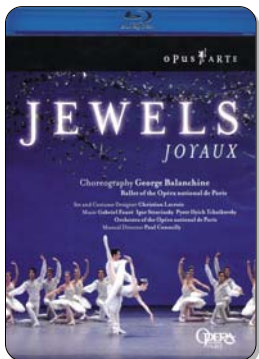


OpusArte DVD BD7010D

푸치니: 잔니 스키키

가장 사랑스런 아리아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들어있는 오페라

소프라노의 콘서트에는 항상 불려지는 사랑스런 아리아 '오, 나의 사랑스런 아버지'는 푸치니의 단막 오페라 <잔니 스키키>중에 나오는 노래이다. 하지만 제목이 풍기는 인상과 달리 이 노래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다기보다는 연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친에게 애원과 동시에 은근히 위협도 가하는 노래라는 것을 안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원래 <잔니 스키키>는 <외투>, <수녀 안젤리카>와 더불어 하룻밤에 공연되는 '3부작'의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독립되어 연주되기도 한다. 인기에 비해서 자료가 많지 않았는데 22년 만에 나온 최신 영상물을 소개한다. 2004년 여름 영국의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실황으로 현역 최고의 바소 부포로 불리는 알레산드로 코르벨리가 타이틀롤을 맡아 눈부신 희극 연기를 펼친다. 원작은 1299년 피렌체를 무대로 하지만 이를 근대로 바꾼 현실감 있는 연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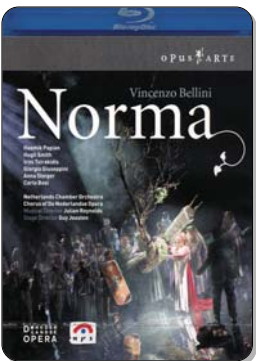


OpusArte DVD BD7011D

조지 발란신: 보석

가장 영롱하고 귀족적인 발레를 최상의 영상미로 제공한 무대

러시아에서 망명한 후 미국에서 뉴욕 시티 발레단을 창립, 20세기 최고의 안무가로 추앙받는 조지 발란신(1904~83)은 1967년 <보석>을 안무했다.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의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보석을 상징하는 빛나는 색상의 의상과 효율적인 무대로 관객을 황홀경으로 이끌어 간다. <보석>은 고전 발레 최고의 영광을 20세기에 재현한 작품이다. 따라서 더없이 귀족적인 기품으로 차고 넘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호사스런 발레단인 파리 오페라 발레는 자신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 작품을 2000년부터 공연했으며 의상과 무대를 한층 더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놀라운 시각적 환희를 안겨준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양대 발레리나인 오렐리 듀퐁과 아네스 레테스튀를 비롯하여 솔리스트 급만 해도 14명이 출연한 2005년 11월 최신 실황이며 눈부실 정도의 최상급 화질을 제공한다. 발란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파리 오페라 발레의 예술감독과 주역 무용수들이 인터뷰한 55분짜리 다큐멘터리도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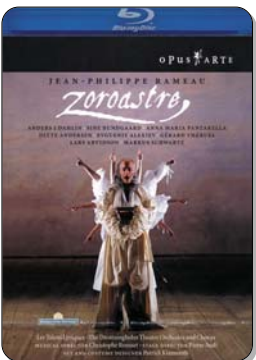


OpusArte DVD BD7013D

벨리니: 노르마

'오페라 속의 오페라'로 전혀 새롭게 탄생한 <노르마>의 혁신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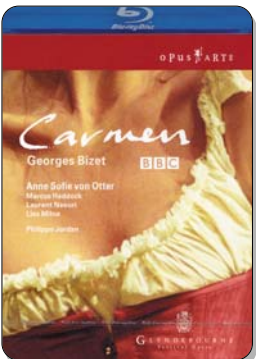
벨칸토 오페라 걸작인 <노르마>는 고대 로마 시대의 갈리아를 배경으로 드루이드교의 여제사장인 노르마와 로마 장군 폴리오네의 숨겨진 사랑, 그리고 폴리오네가 젊은 여승 아달지자를 사랑하여 벌어지는 삼각관계의 비극이다. 귀 주스탱이 연출한 네덜란드 오페라의 프로덕션은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노르마를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의 상징으로서 오페라 주역 가수로 설정한 것이다. 게다가 <노르마>의 전설적 명가수 마리아 칼라스의 이미지를 투영했다. 극이 처음 벌어지는 상황은 오페라 분장실이며 폴리오네와 아달지자 역시 오페라 가수들이다. 노르마는 마리아 칼라스가 즐기던 의상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다. 그러나 점차 오페라의 내용과 극의 내용이 녹아 들어간다. 연출가의 훌륭한 상상력 덕분에 노르마의 비극과 칼라스의 비극이 동시에 구현되는 것이다. 미국 출신의 해스닉 파피안(노르마)과 휴 스미스(폴리오네)가 치밀한 가창을 들려주며 특히 아테네 출신의 이리니 트시라키디스(아달지자)에게 주목해야 한다.



OpusArte DVD BD7014D

라모: 조로아스트르

5막의 장편 오페라 '조로아스트르'는 라모가 66세 되던 해인 1749년에 초연된 작품이다. 예외적으로 철학적이고 심오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작곡가의 다른 재기발랄한 작품들에 비해 큰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선율의 아리아, 개성만점의 다양한 춤곡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이 조화를 이룬 감추어진 걸작이다. 작품은 제목 그대로 BC6세기경에 조로아스터교(배화교)를 창시했던 조로아스터(조로아스트르-자라투스트라)를 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작품의 선의 상징인 조로아스트르와 악의 상징인 아브라마네의 대결, 역시 선과 악을 대변하는 여인들인 아멜리트와 에리니체와의 엇갈린 사랑, 에리니체의 회심, 악의 어두움을 밝히는 선한 빛의 위대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모는 각 배역의 개성에 맞추어 특징적인 아리아들을 배분하였으며, 클라리넷을 도입하여 보다 색채적인 관현악 반주를 만들어내었다. 이 시대 최고의 연출가 피에르 오디의 상상력 풍부한 무대와 프랑스 바로크 음악계의 총아 크리스토퍼 루세의 탄탄한 해석이 뒷받침된 명연이며, 특히 현역 오페라극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몇 남지 않는 18세기 건축물인 스웨덴의 드로트닝홀름 극장의 오리지널 무대장치를 적극 활용한 변화무쌍한 무대가 인상적이다.



OpusArte DVD BD7015D

비제: 카르멘

우리시대 최고의 메조소프라노 안느 소피 폰 오터. 모두가 기다려 왔던 그녀의 카르멘을 드디어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 2002년 8월17일 글라인드 본 오페라하우스에서의 실황을 고스란히 옮겨 담은 이 영상물에서 오토는 카르멘이 요구하는 불같은 열정, 농익은 연기, 능숙한 가창에 대한 모범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유럽오페라무대의 새로운 기대주 해독의 돈 호세와 프랑스의 실력파 바리톤 나우리의 에스카밀로도 오토의 카리스마에 위축되지 않고 뛰어난 가창과 연기를 보여준다. 풍성한 부록이 담겨 있다는 점도 큰 매력거리이다. 영상 시놉시스, 의상디자인과 안무가의 해설, 격투 장면에 대한 뒷이야기가 담겨있으며, 지휘자 조단은 피아노를 치면서 이 오페라에 대해 친절한 해설을 해준다. 그리고 글라인드 본 오페라하우스 주변의 뛰어난 풍광을 담은 보너스 트랙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자연 다큐멘터리의 몫을 충분히 한다.

한글 대본 부착



TDK DVD

www.tdk-music.com



TDK DVWW-BLGISP

아당: 지젤

〈지젤〉이 초연되었던 발레의 성소, 파리 오페라 발레의 최신 실황

프랑스 낭만발레를 대표하는 걸작 〈지젤〉은 아돌프 아당의 음악, 장 코라이와 질 페로의 안무로 1841년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초연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난 시골 처녀 지젤, 죽은 후 빌리라는 귀신의 무리에 합류했지만 무덤가 숲으로 찾아온 옛 연인 알브레히트의 목숨을 지키고자 혼신을 다하는 〈지젤〉은 낭만주의의 이상을 담은 최고의 예술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실 세계인 1막, 비현실적 세계인 2막의 대조효과도 더할 수 없이 훌륭하다. 본 영상물은 2006년 12월, 파리 가르니에 극장에서 있었던 파리 오페라 발레의 실황을 담은 것인데, 이 작품에 대한 동 발레단의 연구권에도 불구하고 정식 영상물로는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전설적인 무대장치가 알렉상드르 브누아가 1924년에 제작한 세트를 재현하여 독특한 미감을 더했다. 레티샤 뿌울(지젤)은 지젤의 시골 처녀의 캐릭터를 살린 독특한 연기를 펼치며 1막과 2막의 대조를 더욱 뚜렷이 한다. 주로 현대물에 출연했던 니콜라 르 리쉬(알브레히트)은 낭만발레에서도 최고의 스타임을 입증하며, 장신의 무용수 마리-아네스 지요(미르타)는 빌리 우두머리의 카리스마를 맘껏 발휘했다.

[보충 자료]

○ 〈지젤〉은 프랑스 발레의 대표작으로 19세기 중반까지 파리를 풍미했으나 발레 예술이 프랑스에서 퇴조하면서 명맥이 끊길 뻔 했다. 그러다 새로운 발레 중심지로 떠오른 러시아 황실 발레의 마리우스 프티파가 러시아로 가져가 자신의 스타일을 가미함으로써 새롭게 탄생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디까지가 파리에서의 오리지널 안무이고, 프티파가 변경한 것은 어디부터인지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경우 프티파의 1887년 판본을 바탕으로 공연하고 있으며 본 영상물도 이를 따르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프티파 수정본을 바탕으로 파트리스 바르와 예프게니 폴라코프가 재구성한 1991년 프로덕션을 무대에 올린 것이다.

○ 본 공연의 진정한 스타는 사실 레티샤 뿌울보다 니콜라 르 리쉬다. 뿌울의 경우 독특한 캐릭터의 지젤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전통과는 어긋난 점도 있고, 이 때문에 찬사와 비난이 갈리는 편이다. 그러나 르 리쉬는 20세기 이후의 현대작품에서 한층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낭만발레에서도 빈틈없는 연기력과 확고한 테크닉으로 객석을 사로잡는다. 지젤을 짝사랑하는 힐라리온 역의 월프레드 로몰리는 역시 동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이지만 주역보다 이런 역에 잘 어울린다. 최근에 은퇴했다. 미르타를 춘 마리-아네스 지요도 비슷한 경우인데 장신에서 뿔어져 나오는 시원한 동작과 카리스마 넘치는 자태로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타의 한사람이다.



TDK DVWW-OPCAV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이탈리아의 동양 파워 – 중국 여류지휘자 장지에민, 한국 테너 박성규

나폴리 인근의 바이아는 베수비오 화산의 영향으로 온천이 발달하여 로마의 황제들이 휴양지로 찾았던 유서 깊은 곳이다. 2007년 여름, 그 고대 욕탕 유적지에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공연되었다. 한국 테너 박성규가 주인공인 투리두를 노래하고, 중국의 젊은 여류 지휘자 장지에민이 지휘를 맡아 오페라 본고장에서의 동양인 파워를 실감케 한다. 여기에 현역 최고의 메조소프라노의 한사람인 헝가리의 일디코 콤포시(산투차 역)가 가세했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나폴리가 자랑하는 산 카를로 가극장이 맡았다. 장지에민은 현재 이탈리아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여성지휘자다. 상하이 음악원 졸업 후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1998년 주빈 메타의 조수로 피렌체 가극장에 합류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박성규는 2005년 레오 누치와 공연한 〈리골레토〉 이후 오페라 본고장에서 주역 테너로 활동 중인 뛰어난 스피노 테너다. 야외무대를 오밀조밀하게 살린 조반니 라우로의 연출, 장지에민의 열정적인 지휘, 박성규의 시원한 열창이 삼박자를 이루어 베리즈모 오페라의 웅숭음침은 흥분감을 잘 살렸고, 바이아의 모든 것과 공연 뒷모습을 담은 3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보너스로 제공된다.

[보충 자료]

○ 테너 박성규 : 대전 출생, 삼육대 음악과 졸업 후 도이(渡伊) 하여 2003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했다. 2001년 루제로 레온카발로 국제 콩쿨 1위, 토리노 비오티 국제 콩쿨 3위 입상을 시작으로 2004년 라보 국제 콩쿨 1위, 리카르도 잔도나이 국제 콩쿨 1위, 2005년 마르세유 오페라 국제 콩쿨 1위와 관객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이태리 트리에스테 베르디극장의 오페라 〈투란도트〉, 스페인 빌바오 극장의 〈이리스〉, 이태리 노우보 조반니 극장의 〈일 타볼로〉, 리미니 오페라 페스티벌의 오페라 〈아이다〉, 2007년 이태리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 무대에 올려진 푸치니 탄생 15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등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2005년에는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세계적인 바리톤 레오누치와 협연 (Superga Nchelino 극장) 하여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08년 가을 내한하여 〈토스카〉의 주역 카바라도시를 부른다.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이탈리아 오페라 역사에서 베리즈모 오페라, 즉 중하류층의 애육을 리얼하게 그려낸 사실주의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린 대표작으로 불린다.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치정관계에 얽힌 살인극으로 막을 내린다. 이런 류의 오페라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처절한 표현력이 요구된다. 박성규는 그런 특징에 접근한 테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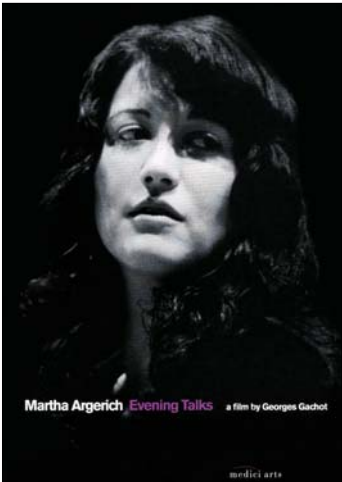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www.euroarts.com

***Medici Arts는 EuroArts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마르타 아르헤리치 “저녁의 대화”

- 몹시 존경했던 그녀의 선생 프리드리히 굴다에 대한 이야기
- 아라우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연주에 충격 받은 이야기
- 쇼팽 콩쿠르, 제네바 콩쿠르, 부조니 콩쿠르 우승 이야기
- 그녀의 모든 연주는 남성적인 힘과 열정, 드라마틱한 악곡해석의 본보기
- 조르주 가쇼 필름. 2002년 ‘프릭스 이탈리아’의 음악 예술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 ‘골든 프라그(Golden Prague)’ 상, ‘프레미오 아솔로(Premio Asolo, 2003)’ 상, ‘유네스코’ 상 수상
- 직수입품, 자막 한글 번역 제공



Medici Arts DVD 3073428

잠잠해질 줄 모르는 힘과 열정

20세기의 3분의 1 정도는 독특한 개성을 표출하며 일세를 풍미했던 명 피아니스트들이 즐비했던 시기였다. 디지털 시대와 컴퓨터의 시대로 대변되는 요즘, 역시 뛰어난 피아니스트들이 대거 진출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 시대만큼 자신의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개성이 상실된 요즘의 많은 연주자들에 실망한 사람들은 종종 20세기 명 피아니스트들의 활약을 전설로 기억하고 그리워한다. 이제 개성이 넘치는 피아니스트 전설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한 뛰어난 피아니스트의 음악세계를 담은 영상물이 애호가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예감하며 등장했다. ‘마르타 아르헤리치-저녁의 대화’. 이것은 여성이면서 남성적인 힘과 야성,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인 기교와 정열을 보여주던 명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삶과 음악세계를 조명한 DVD다. 얼마나 궁금했던가, 그녀의 삶과 음악세계가! 이런 영상물이 DVD로 발매되기를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말할 것도 없이 아르헤리치는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다. 하지만 그간 그녀의 삶이나 음악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렇다할 자료가 별로 없었고,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진 영상물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다니 놀랍다.

그녀의 연주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이야기들

영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절부터 유럽, 빈 시절,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피아니스트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감동적인 순간과 추억이 스케치되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주던 놀라운 스타일과 취향, 콘서트홀에서의 리허설 장면, 그리고 최근의 연주모습들까지 죽 업데이트한다. 어린 나이에 엄마 손에 이끌려 콘서트홀에 갔다가 아라우가 연주하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일, 빈으로 가서 프리드리히 굴다의 유일한 제자가 되었던 그녀가, 선생에게 보내는 애정 깊은 찬사, 굴다가 엄청 좋아했던 ‘목신의 오후’에 얹힌 흥미로운 얘기, 굴다한테서 크게 영향 받은 음악적 유머에 대한 감각, 라벨과 슈만 음악에 대한 특별한 애정, 제네바 콩쿠르와 7회 쇼팽 콩쿠르 우승 등 그녀가 석권했던 콩쿠르 얘기, 그녀가 바흐 음악을 연주하면 스윙처럼 비취었다는 얘기, 음표 하나라도 미스터치 하면 죽어버리겠다며 각오를 다지던 프로 연주자로서의 투철한 의식 등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직접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그녀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연주를 재인식하고 깊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로 작용하기 때문에, 애호가들의 기대와 호기심은 내내 간장을 녹이는 짜릿함으로 충족된다. 연주회 프로그램 외에도 이야기 흐름에 필요한 음악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결국 그녀가 좋아하는 레퍼토리들이 충분히 망라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 쇼팽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과 2번,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프로코피예프의 협주곡, 바흐의 파르티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루토스와프스키의 파가니니 주제 변주곡,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등, 그녀가 참여한 영상물에서 들리는 음악들은 모두 최상급이다.

호방한 성격, 여전히 아름다운 용모

아르헤리치는 지금까지 풍성하고 긴 머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젊었을 때는 ‘긴 머리의 초 미녀’ 용모로 크게 어필했었다. 근영으로는 환갑의 나이까지 비취지지만, 영상 속의 모습은 여전히 매우 아름답다. 특히 웃고 있을 때의 모습이 좀처럼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데, 60을 넘긴 여성의 얼굴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아할 뿐이다. 종종 얼굴을 풍성한 머리 속에 파묻고 얘기하며, 굴다 얘기를 할 때는 마치 소녀처럼 머리칼을 손가락에 감아 돌리는 장난도 한다. 손이나 얼굴에 주름이 많이 더해졌고, 앞머리 쪽에 희끗희끗한 새치가 나이를 말해 줄 뿐, 행동이나 표정이나 아름다운 미소, 음악을 대하는 순수과 열정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외교관인 아버지 덕분에 일찌감치 유럽 음악의 중심지에서 활동했던 그녀가 여러 언어를 아주 풍성하고 자유롭게 구사하는 점도 꽤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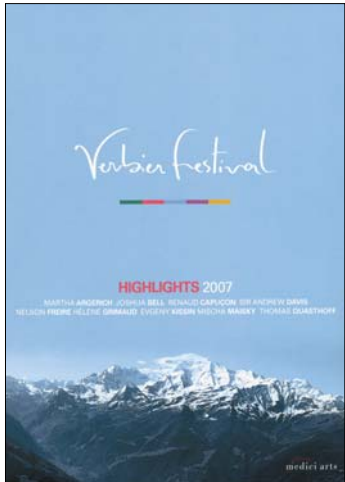
깨끗한 화질과 음향, 많은 상을 받은 영예의 영상물

전체 화질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매우 선명하고, 엄선된 흑백의 다큐멘터리 영상도 대부분 깨끗하다. 풍요하고 명징한 음향조건도 그녀가 연주하는 많은 피아노 음악들의 개성을 충분히 확인해 주고 있어 흡족하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감독은 최근 브라질 여가수 마리아 베타니아를 다룬 <음악은 향기-마리아 베타니아>를 연출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조르주 가쇼(Georges Gachot)다. 2002년 ‘프릭스 이탈리아(Prix Italia)’의 음악 예술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 ‘골든 프라그(Golden Prague)’, ‘프레미오 아솔로(Premio Asolo, 2003)’, ‘유네스코’ 상 등 굵직한 수상 기록이 말해주듯, 예리한 비평가들을 열광적으로 흥분시켰던 감독의 영상물이다.

전설의 초 미녀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음악세계 집중 조명 및 연주 장면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모든 음악팬과 피아노 음악인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DVD ※



Medici Arts DVD 3078058

2007년 스위스 베르비에(Verbier)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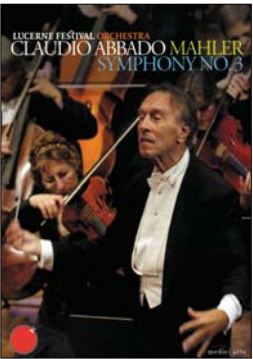
- 최고의 장면만 모은 하이라이트 판
- 아르헤리치, 키신, 르노 카뮈송, 조슈아 벨, 마이스키...현역 최고의 음악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 다양한 독주, 실내악, 협주곡의 하이라이트를 안방에서 즐길 수 있다.

아르헤리치, 키신 등 현역 최고의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1994년에 출범하여 스위스가 가장 자랑하는 혁신적인 음악 페스티벌로 자리 잡은 베르비에 페스티벌은 매년 음악계의 유명 스타들을 등장시키고, 전 세계의 뛰어난 젊은 연주자들을 함께 불러 벌이는 대대적인 클래식 음악행사다. 이 스위스 페스티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유명한 음악인들과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대등하게 섞여 연주한다는 점인데, 그것은 단순한 음악 인맥형성이나 교육효과의 증진의 효과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음악적 행위의 기쁨을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본 DVD는 현역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여 성황리에 치러졌던 2007년 공연 중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던 장면들만을 엄선해 1시간 20분가량 담은 영상물이다. 우선 재킷에 보이는 등장하는 인물부터 훑어보면 호화롭기 그지없다.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를 위시하여, 엘렌 그리모, 라르스 포크트, 넬슨 프레이레, 예페게니 카신이 등장하고, 바이올리니스트로는 르노 카뮈송, 조슈아 벨,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바리톤 토마스 크바슈토프가 나오며, 지휘자 앤드루 데이비스의 이름도 보인다. 2007년 영상이기 때문에 이들 유명 음악가들의 최근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와 호기심이 발동한다.

대가와 무명 연주가의 감동적인 연주

DVD를 플레이어에 올려놓으면, 이들 대 음악가들의 빼어난 실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과 함께 어우러진 세계의 젊은 연주자들이 보여주는 연주력에도 깊은 인상을 받는다. 첫 감동은 루토스와프스키의 '파가니니 변주곡'에서 아르헤리치와 피아노를 맞대고 대결을 벌이는 가브리엘라 몬테로가 안겨준다. 화려하고 힘찬 그녀의 연주는 베테랑 아르헤리치의 연주력에 조금도 밀리지 않고, 연주가 끝난 후 아르헤리치도 파트너의 실력에 감탄하며 기뻐한다. 한편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곡에서 그리모, 카뮈송, 마이스키, 토티 사이에 끼어 연주하는 일본 바이올리니스트 사야카 쇼지에 대한 인상은 더 깊다. 긴 생머리의 옛되고 청순한 쇼지는 미간을 찌푸리는 진지함과 예쁜 미소를 더해 열정적인 슈만의 음악에 동참했는데, 몇 번이고 반복해 봐도 가장 감동적인 앙상을 장면으로 꼽힌다. 2,3악장만 싣고 있는 것이 아쉽할 뿐이다. 드뷔시의 '어린이 세계'를 연주하는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는 차분하고 섬세하며, 유명한 '골리웁의 케이크워크'에서 출중한 리듬처리는 가슴을 뛰게 만든다. 바르톡의 소나타에서는 아르헤리치가 카뮈송의 바이올린과 함께해 둘 사이의 놀라운 호흡을 과시한다. 이것도 3악장만 담은 점이 아쉽다. 라벨 소나타에서 흐르는 농염한 선율은 카뮈송과 그리모의 합작품이다. 이어 카신이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특유의 앞뒤로 몸을 굽혀 흔들며 감미롭게 연주해주고, 호로비츠가 편곡한 비제의 카르멘 변주곡은 놀랍고 화려한 테크닉으로 탄성을 지르게 한다. 그의 연주는 어떤 곡을 연주해도 대개는 비범하다. 마무리는 오케스트라곡이 많았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앤드루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UBS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의 피날레 악장을 연주한다. 땀에 흠뻑 젖은 머리의 조슈아 벨의 모습도, 그 너머로 보이는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적이고 진지한 모습도 모두 아주 인상적이다. 열화와 같은 박수 사례를 받는다.



Medici Arts DVD 2056338

말러: 교향곡 3번

안나 라르손(알토)/ 아놀드 쇤베르크 합창단, 뮌헨 소년합창단/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진행 중인 말러 교향곡 시리즈의 최신보. 2007년 8월 19일 루체른의 KKL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실황을 수록하였다. 라이선스 국내제작이었던 시리즈의 기존 출시판과 달리, 이번 교향곡 3번은 수입완제품으로 선보인다. 말러의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긴 연주시간을 자랑하는 교향곡 3번은 대편성 오케스트라에 알토 독창, 그리고 소년과 여성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필요로 하는 작품으로, 말러 자신의 주장처럼 음악으로 하나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은 모두 6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악장에는 말러 자신이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대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타이틀들이 달려있다. 웅대한 마지막 악장이 마무리된 뒤 아바도가 지휘봉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숨 막힐 듯 이어지는 정적은 이 위대한 연주의 감동을 더욱 배가시킨다. 콜리야 블라어, 나탈리 구트만, 자비네 마이어, 볼프강 크리스트, 하겐 패밀리와 같은 주축 멤버들의 모습은 여전하며, 엠마누엘 파위와 알브레흐트 마이어의 빈자리는 암스테르담 콘체르토헤보우와 보스턴 심포니의 수석을 거친 뒤 솔리스트로 맹활약중인 자크 존과 현 밤베르크 심포니의 수석인 카이 프림프겐이 맡았다.

게나디 로제스트벤스키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 린스키-코르사코프/ 쇼스타코비치

다재다능했던 소련 거장의 귀중한 BBC기록물

구소련 최고의 지휘자가 연주하는 러시아 최고 작곡가의 유명 레퍼토리

로제스트벤스키는 구소련의 지휘자들 중에서 가장 방대한 레퍼토리를 자랑했던 지휘자였다. 로제스트벤스키는 1974년에 스톡홀름 필하모니에 이어 1978년부터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맡았는데, 이 영상물은 바로 그 시기의 기록이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린스키-코르사코프의 러시아 부활절 축제 서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4번이 실렸다. 위트가 넘치고 때때로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독특한 리듬과 색감으로 청중을 매료시키곤 했던 그의 지휘역량을 만끽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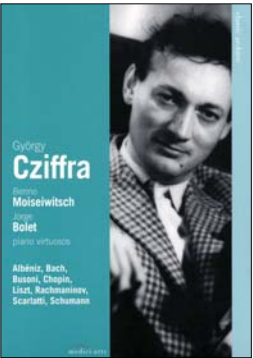
피아노의 거장들

치프라 & 모이세비치 & 볼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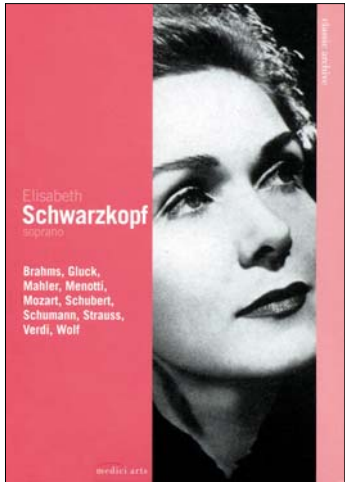
한 시대를 풍미했던 리스트 스페셜 리스트 치프라와 볼레, 20세기 중반을 대표했던

러시아의 거장 모이세비치의 진귀한 영상들을 담은 DVD.

1955년 리스트 상을 수상했고, 리스트 음악 연주로 일세를 풍미했던 최르치 치프라의 1960년대 초반 음원들. 헝가리 광시곡, 폴로네즈 등에서, 신기에 가까운 기교와 음악적 흥분을 선사한다. 러시아 태생의 모이세비치는 슈만의 환상소품, 어린이 정경의 명곡('꿈' 포함)을 연주한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광시곡은 잔잔한 타건이 가슴을 축축이 적신다. 호르헤 볼레의 리스트, 알베니스, 쇼팽의 음악들도 눈부시게 아름답다.



Medici Arts DVD 3085288



Medici Arts DVD 3085268

Medici Arts의 Classic Archive 시리즈

20세기의 위대한 독일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의 최전성기 모습

성악 애호가들의 절대적인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20세기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 중의 한 사람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는 1915년 12월 9일, 폴란드 중서부 포츠나인(Poznan) 근처의 야로친(Jarotschin)이란 곳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선생은 리트 가수인 롤라 미슈-그마이너와 콜라라투라 소프라노 마리아 이보겐, 그리고 나중에 이보겐의 남편이 되었던 피아니스트 미하엘 라우하이젠(Michael Raucheisen)이었다. 슈바르츠코프는 원래는 알토 성부를 노래하다가 이보겐한테 배우면서 소프라노로 전향했고, 노래도 기초부터 다시 배웠다. 그러니까 그녀는 처음부터 두 명의 각기 다른 가수 선생한테 배움으로써 콘서트 무대에서의 리트와 오페라 무대에서의 아리아를 동시에 부를 수 있는 조건을 얻었던 것이다. 1938년에 베를린 시립 오페라에서 〈파르지팔〉의 꽃의 요정으로 데뷔했던 슈바르츠코프는 1942년에는 빈에서 열린 독일 리트 리사이틀에서 지휘자 카를 뵘의 눈에 들어 곧 빈 국립 오페라의 멤버가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콜라라투라 소프라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빈 뿐만 아니라 잘츠부르크, 바이로이트 등의 유명 음악제에서도 활약하면서 카라얀과 함께 활동하는 일이 많아졌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노래할 때에는, 비록 여전히 이탈리아 오페라를 많이 불렀지만, 모차르트 가수로 서의 명성이 더 높았다. 1947년에는 영국의 코벤트 가든 왕립 오페라 극장에 데뷔했는데, 이때 그녀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의 엘비라 역으로 크게 주목 받았고, 빈 국립 오페라와 함께 최초로 영국 무대에 서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은 후 그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의 한사람으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유명한 EMI 레코드 기획자이며 프로듀서인 월터 레그(Walter Legge)와 결혼하고 많은 레코드를 남기기 시작했다. 이때 그녀가 맡은 오페라 역할은 그야말로 화려함 자체였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백작 부인 역, 〈돈조반니〉에서 엘비라 역, 〈코지 판 투테〉의 피오르딜리지 역, 그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에서는 마르살린 역까지 완벽하게 소화하였다. 그녀의 배역은 그 폭이 넓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한정된 배역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그 배역으로 결국은 최고의 명성을 얻었다. 그녀의 음성은 약간 비음이 섞여 있는 특징을 보였지만, 밝고 화사하며 우아하고 유연해서 초기에는 경 오페라 역할에 자주 픽업되었다. 하지만 점차 비중 있는 배역에 도전했고, 그래서 〈피가로의 결혼〉에서 즐겨 부르던 수잔나 역도 그만 두고 백작 부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독일 가곡, 즉 리트 가수로서도 그녀는 뛰어난 역량을 보여 전후 최고의 리트 가수로 칭송받았다. 전후에 그녀는 피셔-디스카우와 자웅이었다. 피셔-디스카우가 남성 성악가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가수였다면, 여성 성악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수는 슈바르츠코프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가 중요한 음악 센터에서 가곡 리사이틀을 연다고 하면 애호가들은 그것을 한해 내내 그렇게 열성적으로 기다렸다가 참석하곤 했다. 그녀가 콘서트 레퍼토리에서 부른 것은 독일 가곡만이 아니었다. 바흐의 수난곡 아리아, 헨델과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베토벤의 합창작품들, 그리고 베르디 심지어 티페트의 '우리 시대의 아이' 까지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명성 뒤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따라다녔다. 나치 시대를 겪어온 많은 예술가들의 경우처럼, 그녀의 이름도 나치에 협력한 예술가 명단에 끼어 있었다. 그녀의 명성이 너무도 화려했기 때문에 명단 속의 이름이 특히 돋보였다. 1982년 뉴욕 타임스는 나치 치하의 음악가

들의 행적을 폭로하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작부인을 '나치의 여신'으로 전락시켰다. 영국의 한 평론가도 자신이 쓴 슈바르츠코프 전기에서 그녀를 베를린 음악학교 재학시절 나치 학생연합의 간부로 일했는가 하면 괴벨스 선전 장관의 제국 영상원에 들어가서 나치를 찬양하는 영화에도 출연했다고 확인해주었다. 물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그랬듯이 그녀도 역시 불가항력의 선택이었다고 변명했다. 아무튼 그녀의 예술 활동에서 그런 혐의 때문에 그녀의 위대한 세계가 퇴색하는 일은 없다. 일세를 풍미했던 위대한 소프라노는 2006년 8월 3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경계 지역인 슈룬스(Schruns)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

최전성기 슈바르츠코프의 BBC 보석 음원

이 DVD에는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가 BBC에 남긴 주옥같은 노래들이 담겼다. 1961년과 1970년의 일이니 그녀의 나이 40대 중반과 50대 중반의 기록인 셈. 모든 기량이 완숙한 정점에 있던 최전성기 음원이라고 할 수 있다. 모차르트의 '실 찾는 어린 소녀'를 시작으로, 슈베르트의 '음악에게', '실비아에게', 슈만의 '호두나무', 브람스의 '골짜기 아래로', 슈트라우스의 '내일' 등 그녀의 음성으로 각인된 불후의 레퍼토리를 포함해 여러 노래들이 불려진다. 20세기 최고의 반주 피아니스트 제럴드 무어와 함께했는데, 칼라 화면에서는 곡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까지 곁들이고, 무어와 대화도 하면서 이해를 돕는다. LP레코드에서 꿈결처럼 느껴던 분위기가 이렇게 생생한 화상으로 나타나다니 놀라운 일이다.



DYNAMIC DVD

www.dynamic.it



DYNAMIC 33581

메피스토펠레

보이토의 이탈리아 오페라로 재탄생한 괴테의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는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음악가들이 오페라로 만들기를 주저했던 작품이다.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내재된 담론이 거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베를리오즈, 구노 등 프랑스 작곡가의 손에 의해 오페라 혹은 유사 오페라로 탄생했다. 이보다 약간 늦게 이탈리아에서 나온 작품이 아리고 보이토의 오페라 〈메피스토펠레〉(1868)다. 제목으로 보듯 파우스트보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에 비중을 둔 작품이며, 3막의 마르케리타의 죽음은 지극히 비극적으로 그려졌다. 본 영상물은 전설적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의 아들인 잔카를로 델 모나코가 연출한 팔레르모의 테아트로 마시모 실황이다. 델 모나코는 메피스토펠레가 타이틀 롤이란 점에 주목하여 무대와 의상을 무척 희화화시켰으며 색채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이탈리아의 거물급 베이스 페루치오 푸를라네토가 놀라운 가창력으로 무대를 지배한다. 특히 에필로그 장면은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다. 도밍고가 후원하는 젊은 테너 주세페 필라노티도 호연이며, 소프라노 디미트라 테오도슈는 제3막에서 감동적인 연기와 노래를 펼쳐냈다. 2008년 1월의 최신 실황답게 최상의 화질과 음질을 보장한다.



Naxos DVD 음악여행 시리즈

www.naxos.com

● 음악여행 시리즈 ●●●

폭발적인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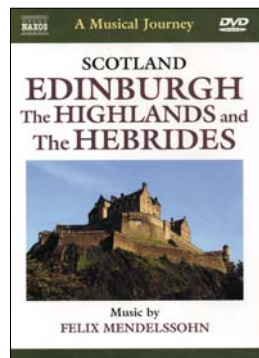
놀라운 자연,

위대한 음악가의 인생과 함께하는 클래식 영상물의 명작.

낙소스 음악여행.....

Scotland
Russia

Ukraine



Naxos DVD 2,110529

스코틀랜드 (Scot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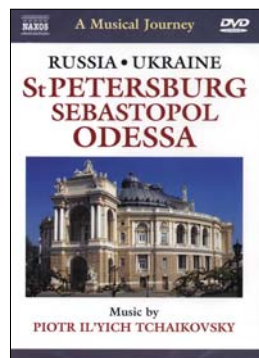
젊은 멘델스존이 만났던 스코틀랜드의 성과 자연풍광

펠릭스 멘델스존은 20세가 되던 1829년에 자신의 첫 교향곡을 지휘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다. 런던에 3개월간 머물고 스코틀랜드를 여행했는데 그 인상이 무척 강렬했던 것 같다. 그 산물이 교향곡 제3번 '스코틀랜드'와 일명 '핑갈의 동굴'로 불리는 '헤브리디즈 군도' 서곡이다. '스코틀랜드 교향곡'의 첫 악장은 멘델스존이 상세한 기행문을 남긴 에딘버러의 홀리루드 성에서 출발한다. 에딘버러에는 비운의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매리 스튜어트, 그리고 대문호 윌터 스코트의 자취가 많이 남아있다. 2악장 이후에도 중요한 성들이 등장한다. 에딘버러 성, 두아트 성, 토로세이 성, 인버라리 성 등등은 전설의 땅으로 여겨졌던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대변한다. '헤브리디즈 군도'에서는 바다 풍광을 선사한다. 오르간 파이프를 연상시킨다는 거대한 석주, 바위틈에 생성된 핑갈의 동굴도 자세히 볼 수 있다. 군도의 절경은 항공촬영으로 시원하게 잡아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Russia, Ukraine)

차이코프스키의 음악과 함께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행

차이코프스키가 살던 시대에 제정 러시아의 수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였다. 그는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지만 교육받고 성장한 근거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보아야 한다. 본 영상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러 명소들로 시작한다.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름 정원, 마린스키 극장, 여러 명사들의 무덤, 다양한 교회와 궁전들을 만날 수 있다. 차이코프스키가 말년에 머물렀던 모스크바 인근 클린의 집은 2악장에 소개된다. 차이코프스키의 가장 세련된 음악인 '현을 위한 세레나데'의 첫 악장은 우크라이나의 오데사에서 출발한다. 흑해에 면한 이 항구도시에는 에이젠슈타인의 기념비적 영화 <전함 포템킨>의 무대이기도 하다. 유명한 왈츠가 나오는 2악장은 러시아의 아름다운 시골 풍광을 엿볼 수 있고 3악장과 4악장은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 네바 강에서 바라보는 일몰과 일출, 유서 깊은 다리 와 시민들의 자연스런 모습을 담았다.



Naxos DVD 2,11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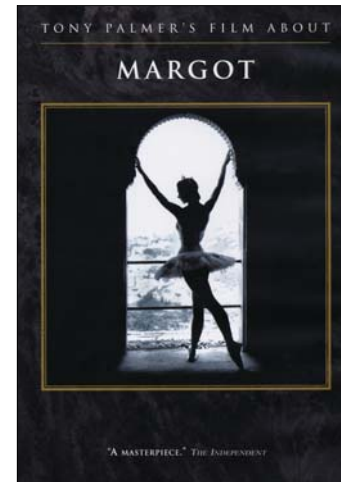
Tony Palmer's Film DVD

www.tonypalmerdvd.com

마고트 폰테인

위대한 발레리나이자 모든 면에서 아름다웠던 마고트 폰테인의 기록

마고트 폰테인(1919~1991)은 20세기 발레리나의 표상이다. 너무도 완벽한 무용수였기에 '프리마 발레리나 아줄루타(절대적인 주역 무용수)'라 불렸으며 은퇴할 나이인 40대를 넘겨 러시아에서 망명한 루돌프 누레예프를 만나자 기적과 같은 파트너십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면도 있었다. 연인이었던 작곡가 콘스탄틴 램버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파나마 정치가 로베르토 아리아스는 정적의 피격을 받아 반신불수로 여생을 보냈다. 폰테인이 나이 든 이후에도 무용수 생활을 접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남편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었다. 결국 말년에는 파나마 벽촌의 농장으로 숨어들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자신의 병을 발견하여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삶을 마쳤다. 마지막까지 폰테인을 도운 것은 누레예프였다. 본 영상물은 예술가 다큐멘터리에 있어서 최고의 명감독인 토니 팔머가 제작한 것이다. 무려 163분에 걸쳐 수많은 인터뷰는 물론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귀한 공연 자료까지 풍부하게 수록되었다. 특히 개인적 고통 속에서도 부드러움과 배려를 잃지 않았던 폰테인의 진면목을 통해 그 내면적 아름다움까지 확인하게 되는 감동적 자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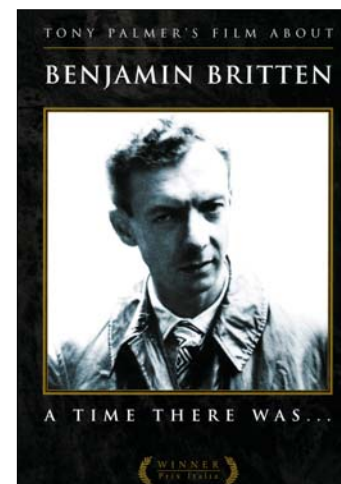


TONY PALMER TPDVD124

벤자민 브리튼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천재적인 작곡가의 삶과 사랑

벤자민 브리튼(1913~1976)은 모차르트를 닮은 신동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영국 작곡계의 풍조였던 목가풍의 스타일을 기피하고 유럽 본토의 앞선 스타일을 선호했다. 내성적인 편이었던 그가 반역자를 만난 것은 1937년이었는데 그 상대는 3살 연상의 테너 피터 피어스였다. 동성이었지만 평생에 걸친 음악적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1939년 미국 방문을 함께 했고 반전론자였기에 병역을 거부한 채 3년 후에야 영국으로 돌아왔다. 개인적 성향과 사회적 소신에 있어서 일종의 마이너리티였던 브리튼과 피어스는 결국 소외당한 자에 대한 작품에서 최고의 진가를 발휘한다. 왕따 당하는 어부를 그린 <피어 그라임즈>, 유령에 대한 보고서나 다름없는 <나사의 회전>, 미소년에 매혹당한 나머지 죽음을 피하지 않는 독일 작가를 <베니스의 죽음>이 그런 예이다. 본 영상물은 브리튼이 사망한 후에 피터 피어스가 최고의 다큐멘터리 감독 토니 팔머에게 부탁하여 제작된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깝잖이 그려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표현상의 과도한 포장 없이도 잔잔하게 감동을 이끌어내는 토니 팔머 특유의 솜씨가 잘 발휘하고 있다. 특히 브리튼의 오페라를 이해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될만한 영상물이다.



TONY PALMER TPDVD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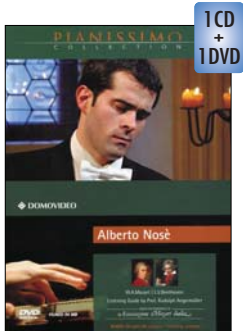


DOMOVIDEO DVD

www.domovideo.com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홈 비디오 레이블 도모비디오(DOMOVIDEO) 고품질 DVD영상물로 수입!!

멀티그램 커뮤니케이션(Multigram Communication)은 클래식 음악 분야의 시청각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는 이탈리아의 회사다. 이 회사가 이탈리아에서는 너무도 유명한 역사적 홈 비디오 레이블 도모비디오(DOMOVIDEO)의 이름을 내걸고 고품질 DVD영상물을 출시한다!



Domovideo DMM-510



Domovideo DMM-510



Domovideo DMM-517

이탈리아 젊은 피아니스트, 모두 생경한 이름, 하지만 그들의 탁월한 연주력에 탄성을 지른다.
도모비디오의 ‘피아니시모 컬렉션(Pianissimo Collection)’

알베르토 노제의 모차르트, 베토벤 연주

모차르트가 머물던 피치니 궁에서의 녹음

2006년 4월 이탈리아의 알라에 있는 피치니(Pizzini)궁에서 연주한 기록으로, 프로그램은 모두 모차르트와 베토벤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피치니 궁에서의 모차르트 녹음이란 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 옛날 궁전은 모차르트와 그의 아버지가 이탈리아 여행 중에 머물곤 하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최신 영상물로 부드럽고 화사한 화질을 자랑하며, 영롱한 피아노 음향을 만끽할 수 있다. 뉴욕 타임스가 '튼실한? 테크닉과 균형 잡힌 내성을 지닌 연주자'라며 극찬했던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알베르토 노제의 은은한 감동의 연주다.

*같은 음원의 보너스 CD 포함.

로베르토 프로세다가 연주하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쇼팽

빠어난 선율감각, 정감 가득한 연주

2006년 7월 이탈리아 파도바의 콘타리니 빌라에서 녹음한 것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K.283, 333, 슈베르트의 즉흥곡 op.90의 세트, 쇼팽의 녹턴과 발라드를 연주한다. '그렇게 열렬하게 추천할 만한 젊은 피아니스트를 알지 못한다'고 한 찰스 로젠의 격찬을 뒤로 해도, 이 하나의 영상물은 그가 뛰어난 테크닉의 소유자이면서도 빠어난 선율 감각과 깊은 음악성으로 정감 가득한 연주를 펼친다는 사실을 잘 알려준다. 화질도 무척 좋고, 무엇보다도 잔향이 완전히 살아있는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내내 귀를 즐겁게 한다.

*같은 음원의 보너스 CD 포함.

베르디 레퀴엠 미사

지휘: 로린 마젤/ 독창자: 루치아노 파바로티, 쉐런 스윙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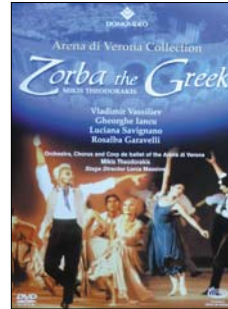
연주: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월드 페스티벌 합창단원 3000명

원곡 투하 45주년을 회고하는 스페셜 이벤트

1990년 8월, 히로시마 원폭 투하 45년에 즈음하여 이탈리아에서 거행된 베르디의 엄청난 규모의 레퀴엠 미사 공연이다. 공연은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로린 마젤이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파바로티와 독창자 세 명, 그리고 무려 3천명이나 되는 월드 페스티벌 합창단이 함께 음악에 몰입하고 있는데, 공연장의 특별한 규모나 실제 음향의 크기에서 엄청난 감격을 주는 영상물이다. 포효하는 관악기들, 힘하고 강렬한 열정의 합창이 인상적인 '진노의 날'은 역시 압권이다!

“조르바의 댄스” 그 이름만으로도 흥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자유로운 영혼과 송고한 인간미의 극적 완성미를 갖춘 발레극 그리스인 조르바
그대 영혼도 자유롭게 휘~휘 춤출 수 있기를...



Domovideo DMM-518

그리스인 조르바

- 카잔차키스의 소설, 테오도라키스의 음악을 춤으로 만든 감동의 극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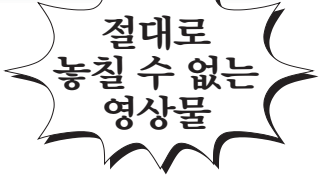
- 1990년 베로나 페스티벌에서 리바이벌된 실황을 수록

- 볼쇼이 발레의 전설, 블라디미르 바실리에프가 조르바의 화신같은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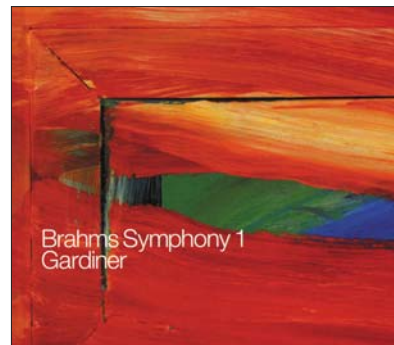
-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직접 지휘와 감독을 맡아 소중하고도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

- <여행자의 노래> 선곡자인 임의진 시인이 춤꾼 조르바 이야기를 북클릿으로 덧붙였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이다. 작가와 직접 만났던 실존 인물 조르바는 삶의 지혜를 본질적으로 깨달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서 전세계에 조르바 신드롬을 일으켰다. 안소니 퀴 주연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으며 해변에서 춤추는 피날레는 영화사상 불멸의 명장면이다. 그 영화 음악은 그리스 음악계의 상징적 존재인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작곡한 것이었다. 테오도라키스는 이를 확대하여 발레음악으로 만들었고, 러시아의 위대한 무용가 레오니드 마신느의 아들인 로르가 마신느가 안무를 맡았으며 소설을 발레로 바꾸면서 극을 압축하였지만 조르바와 그의 친구 존의 춤에 크레타의 군중이 가세하는 피날레는 안소니 퀴이 추었던 영화 속의 명장면 이상으로 감격적이다.



CD Hot Issue | 존 엘리엇 가디너의 <브람스 교향곡 시리즈 제 1탄>



SDG 702

브람스 : 교향곡 1번, 운명의 노래 Op.54, 장송곡 Op.13
멘델스존 : Mitten wir im Leben sind Op.23-3
(Brahms : Symphony No.1)

SDG를 통해 선보이는 존 엘리엇 가디너의 브람스 교향곡 시리즈 제 1탄

그라모폰 2008년 10월호 추천음반.

2007년 11월에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를 통해 강렬하게 각인되었던 '심포니스트'로서의 가디너를 다시금 접하게 된다.

"시리즈의 좋은 징조를 알리는 계시적인 연주. 엄청나게 극적인 이 연주는 힘이 넘치면서도 가식이 없다. 강력한 브람스 교향곡 1번으로, 함께 수록된 3편의 합창곡과 더불어 충분히 제대로 된 연주다." - Richard Osborne 그라모폰 2008년 10월호

"오케스트라의 빠른 템포와 투명한 텍스처는 기존의 음반들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신선함을 만들어낸다. 낭랑한 목관악기와 윤곽이 뚜렷한 현악파트의 사운드는 이 연주에 또 다른 추진력을 안겨준다." - Stephen Pritchard 오페라 2008년 9월 14일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이 연주는 이 작품의 수많은 레코딩들 중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음반들 역시 대단히 기대된다." - Dominic McHugh www.musicalcriticism.com

"가디너의 시대악기 텍스처와 설득력있는 템포는 쉽게 분위기가 가라앉기 쉬운 이 작품을 한껏 고양시켜 놓았다. 환상적인 패키지과 브람스에 관한 가디너와 휴 우드의 재미있는 대담을 담은 내지 역시 훌륭하다. 환상적인 사이클을 약속하는 좋은 출발." - Andrew Clements 가디언 2008년 10월 3일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8,500개 음반 / 25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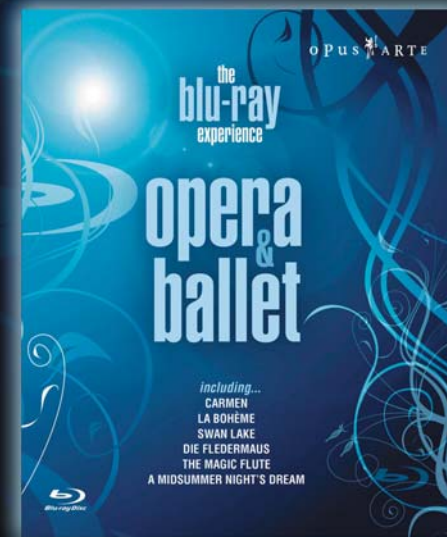
서비스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Coming Soon...

OpusArte 블루레이 blu-ray 샘플러



- Verdi: *Il trovatore*
- Tchaikovsky: *Swan Lake*
- Mozart: *The Magic Flute*
- Puccini: *La Bohème*
- Bizet: *Carmen*
- Mendelssohn: *A Midsummer Night's Dream*
- Puccini: *Gianni Schicchi*
- Strauss: *Die Fledermaus*
- Rameau: *Zoroastre*
- Rossini: *La Cenerentola*
- Bellini: *Norma*
- Balanchine: *Jewels*
- Cecilia & Bryn at Glyndebourne
Mozart Die Zauberflöte 'Pa-pa-pa-pa'



표지사진
그리스인 조르바

〈아울로스뉴스〉 2008년 8, 9월호
통권 제 33호 발행 : 2008년 10월 6일
발행인 : 임용묵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